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연구

지도교수 김 형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주 보 영

주보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09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2015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내 제시된 미술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현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미술관과 학교의 연계교육이 현 교육과정과 2018년에 적용될 교육과정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내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개선방향과 활성화를 제언하는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선행연구의 고찰 및 이론적 배경 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내포된 미술관 교육내용을 분류 및 분석하여 연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직 미술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법 등이다. 이를 통해 총 7가지의 평가기준 영역을 선정하고 실태 · 만족도 · 교육과정목표달성평가 · 참여지속의도 이렇게 4가지의 하위영역을 개발하여 연구도구를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중학교 가운데 64개의 학교를 선정 후 학생 686명 교사93명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 실태 부분에서 학생과 교사는 보통 정도로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는 보통이 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서 미술관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 실태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미술관 측의 정보제공과 지원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은 두 그룹 다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 부분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학교의 행정적, 제정적인 부분의 지원에서 개선점을 느끼고 있는 교사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다양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학생은 교사만큼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술관의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전시의 관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사는 ‘활동지 활용’으로 응답하였고, 학생은 ‘개인별 작품 만들기’로 응답하였다. 이 밖에도 미술관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다양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차이를 통해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의 주체가 학생인점을 인식하여 좀 더 의미 있게 학교와 미술관에 적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중학교 교육과정 목표 달성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진로와 연계된 영역의 질문에서 학생과 교사의 통계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진로 부분에서 학생이 실제 인식하고 있는 미술관 관련 직업과 본인의 진로와의 연계 부분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사가 인식하고 있기에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결과, 참여 지속을 위한 교사와 학생 모두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두 그룹 다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참여 의지가 있음을 유의미하게 보여주었다. 교육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그렇다’ (51.1%) ‘그렇다’ (45.7%)로 교육 예산 지원 개선의 시급

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반면 ‘보통이다’ (45.0%), ‘그렇다’ (26.7%)로 교사보다는 교육예산 지원 개선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나타난 결론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기본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미술관 내부의 교육자인 교육담당자와 교사와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역할 인식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미술관을 바라보는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도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에 따른 선행학습을 포함한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미술관이 지속적인 평생교육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평가부분에서 교육과정 목표가 포함된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와 미술관 측 모든 교육관계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주요어 : 2009개정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 미술관 교육

학 번 : 2013-23358

표 목 차

[표1] 2009개정과 2015개정 미술과 교육목표	21
[표2] 2009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23
[표3]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24
[표4] 미술관 연계교육 목표달성평가영역의 기준	26
[표5] 학교연계 프로그램 유형	30
[표6] 국립현대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32
[표7] 서울시립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33
[표8] 삼성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36
[표9] 대림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38
[표10]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표11] 연구도구의 하위 영역	44
[표12]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문항별 기술통계	47
[표13] 학생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50
[표14] 교사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51
[표15] 미술교육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52
[표16] 학교 미술수업으로 미술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53
[표17] 학교 미술교육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인식 차이	54
[표18] 미술관 관람 및 참여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54
[표19] 프로그램 참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55
[표20] 미술관 관람 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56
[표21] 게시판을 이용하여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57
[표22] 학교가 연계 교육 필요시 행정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57
[표23] 학교가 연계 교육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58
[표24]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	60
[표25] 미술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62
[표26] 미술관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63
[표27] 미술관 연계교육을 시행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차이	64
[표28] 미술교사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있는지에 대한 인식	65

[표29]	학생들이 연계교육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지에 대한 인식	66
[표30]	미술관 연계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	67
[표31]	미술관 프로그램이 학교수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68
[표32]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69
[표33]	미술관의 전시물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70
[표34]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가 학습에 적당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70
[표35]	미술관 관람에 소요된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70
[표36]	교육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0
[표37]	교육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3
[표38]	가장 적절한 미술관 연계 교육의 인식 차이	74
[표39]	스스로 미술관 관람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5
[표40]	학생들이 미술작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6
[표41]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7
[표42]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에 대한 인식 차이	78
[표43]	연계교육이 미술품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8
[표44]	문화적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79
[표45]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0
[표46]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1
[표47]	미술비평활동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2
[표48]	연계교육에 표현 특징 활동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3
[표49]	미술관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3
[표50]	연계교육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였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4
[표51]	연계교육이 미술 작업에 주도적 참여를 도왔는지 인식 차이	85
[표52]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6
[표53]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86
[표54]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	88
[표55]	미술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89
[표56]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90
[표57]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91
[표58]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92
[표59]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지원 인식 차이	93

[표60]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 인식 차이	94
[표61]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 번째로 필요한 지원 인식 차이	95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선행 연구 검토		5
II 이론적	배경	7
1. 미술관 교육		7
1) 미술관 교육의 개념		7
2) 한국 미술관 교육의 출발		10
2. 2009개정과 2015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술관 교육		13
1)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13
2)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16
3) 2009 개정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19
III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26
1.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26
1) 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의 관계 및 필요성		26
2)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유형		29

2.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31
1) 국·공립 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31
(1) 국립 현대 미술관	31
(2) 서울 시립 미술관	33
2) 사립 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35
(1) 리움, 삼성 미술관	35
(2) 대림 미술관	36

IV 연구 방법 39

1. 연구 대상	40
2. 측정 도구	42
3. 연구 절차	43
4. 자료 분석	45

V 연구 결과 46

1.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	46
2.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	58
3.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	74
4.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	87

VI 결 론	96
--------------	----

참고 문헌	104
-------------	-----

Abstract	111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과 정보의 방대함과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도 다원화 되며 삶의 질은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은 각각 자신의 노력을 통해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배움을 익혀 나가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관들도 빠른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평생교육 사회에 도달한 것이다.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의 다원성과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에서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배움을 익힌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미술관을 들 수 있다. 미술관은 문화 예술의 전수 및 향유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하고 있으며, 각 미술관들은 관람자에게 소장품과 전시작품을 체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시킬 것인가의 대한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최우정, 2008). 이에 미술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미술관과 미술관에 대한 활용 조항이 개설되었는데, 변자정(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7차 미술교과 교육과정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함’을 목표로 학생들이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을 통하여 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포괄적인 미적 감

상 능력을 기르는 것에 미술교과목의 목표가 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학기 중 적어도 1회 이상 미술관과 미술관을 견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 후 15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 프로그램이 현 교육과정의 미술교과 목표에 적합하게 잘 연계되어 가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자는 학교와 미술관 두 곳 모두에서 재직경험을 가지고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두 곳을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미술관의 학교현장에 대한 미흡한 이해는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늘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기존의 미술관에서 개설되어 있는 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학교 연계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이 없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는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이므로, 미술관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 관한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와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연구는 미술관의 교육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학교현장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궁극적으로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과 교사의 인식차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두 주체의 합의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하며 그 변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들 모두가 중요한 주체임을 상기시키며, 서로의 이해의 차이를 통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미술관을 연결해주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써 미술관의 기본적인 내용과 현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정을 확인한 후, 교육과정의 미술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현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비교한다. 그것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학교 미술교육과정내의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앞으로 발전된 학교와 미술관 연계 교육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미술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진다. 첫째, 미술관 교육의 개념과 한국 미술관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어 왔는지에 대한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중등 교육과정의 미술관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교육과정 내의 미술관 교육의 변화에 대해 탐색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다.

3장에서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장으로써, 먼저, 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의 관계와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여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 국내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 탐색하고 본격적인 현황을 모색하기 전 사

전 이해를 돕는다. 그 다음으로 실제 국내 국·공립과 국내 대표 사립 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탐색한다. 여기에는 현 국내에서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미술관 내 교육담당자가 35명이 넘는 미술관들만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측정도구, 연구절차 그리고 자료처리에 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한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수정·보완을 걸쳐 완성된 연구도구를 779명의 서울시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배분하고 연구도구 분석을 위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일반적 특성을 적용하고 신뢰도 분석과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5장에서는 앞서 밝혔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현 국내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와 국내 교육과정의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약50가지의 질문이 담긴 설문지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 하는가 등의 결과들을 도출해 낸다.

마지막 장인 6장,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또한, 본 논문을 토대로 하는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학술정보원(RIS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미술관 학교연계’의 검색어로 연구를 검색한 결과, 국내 연구들은 크게 ‘학교연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교사와 학부모 인식 관련 연구’,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학교연계 프로그램 비교 연구와(오승신, 2006; 이경진, 2005) 국내 학교연계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과(서은채, 2009; 김정은, 2008; 장문정, 2008) 같이 각 학교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현황분석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개선과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하지만, 활성화와 방향에 중점을 둔 선행 연구도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가르치고 있는 현황과 그 방향을 제시하는 미술관과 학교 연계 미술관 교육의 원리와 사례에 관한 연구가(안금희 외, 2001) 있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대한 연구는 2010년도 이후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연구가 활발하던 2000년대를 지나 연구자들이 국내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뮤지엄(museum)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연구와(제민양, 2011) 미술관, 박물관 교사연수프로그램분석 및 개선방안(최윤솔, 2010)을 통해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 교육을 위해 연계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교사의 노력과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염윤영, 2012) 학부모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학교와 기관가의 연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하였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중 미술관 교육과 학교미술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정내영, 2008)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술관 교육을 주장하며 교사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와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장용미, 2007)은 학교의 조직적인 문제점과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개선이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에 비춰보면,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자의 인식에 한정되어 교사, 학교장, 교육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고 정작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미술관과 학교연계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정과의 연결을 많은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이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과 교육과정 목표와의 연결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연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교육을 직접 받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으로 실재적 연계 방법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에 관한 다방면적인 인식을 함께 연구하여 현 교육에 맞는 실질적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관 교육

1. 미술관 교육

1) 미술관 교육의 개념

국제 미술관 협회회의 [국제미술관 협회회 정관(ICOM Statutes)] 제 2조(정의)에서는 “미술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질 증거를 연구·교육·향유 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보존·조사연구·상호교류(교육·전시)하는 비영리적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¹⁾ 국제 박물관 협회(ICOM)의 전문가들은 미술관을 단순히 수집품 보존과 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장하는 미술품과 역사적 유물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문화적, 예술적 가치와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며, 관람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기쁨과 사회 교육에 효과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관리하는 합구적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안현주, 1997) 또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미술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라 정의한다.²⁾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술관은 예술품과 유물 자료들의 수집, 문화적, 학문적 가치의 발전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연구 기능과 함께 관람

1)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Definitions' Code of Professional Ethics, Paris : ICOM, section 1.2 'Museum' , 1989, p.9

2)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서울 : 문화관광부, 1996, p.6

자들에게 전시를 통해 사회 교육에 힘쓰며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미술관이 예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만 비중을 두었다면 최근에 와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래의 기본적인 기능이었던 작품이나 자료를 보존, 조사, 수집, 연구에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통하여 미술관을 더욱 중요하고 유익한 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교육이란 의미가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 개념이 변화하듯 미술관 교육의 개념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오고 있다.

1946년에 비정부기구(NGO)로서 창립된 국제미술관협의회(ICOM)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관 정의(definition)는 3년에 한번씩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종종 바뀐다.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1961년에 처음으로 미술관 정의 안에 목적을 설정하는 데 그 시기부터 연구(study)가 가장 우선시되다가 200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총회에서 그 순서를 바꾸어 교육(education)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Hein, 2012)³⁾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미술관 교육’이란, 미술관·교육·미술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로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 미술작품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변자정, 2007, p.10). 박휘락(2006)에 따르면 “미술관 및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은 점차 강조될 것이고 다양한 관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의미 있는 예술 체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미술관 및 미술관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미술관 교육의 정의와 미술관의 의미를 통합하면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문화 활동을 의미하고 미술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구성주의 박물관 교육론, Learning in the Museum, 민속원 p.24

또한 미술관은 미술품을 수집, 보존, 전시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문화 예술의 발전과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곳으로, 미술관이 교육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관의 기능은 수집, 분류, 보존, 그리고 소장품의 해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소장품 해석’ 부분은 소장품과 관람객과의 접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형숙, 2001, p.220).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관람객이 전시와 소장품을 이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통합교육활동으로 넓은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소장품 전시,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특별행사 등과 같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여러 활동을 포괄한다.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다(김서현, 2007, 재인용). 즉, 미술관에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소장하고 있는 실물 자료를 전시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은 스스로 미술 문화를 체험,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다. 나아가 인류가 오늘까지 이룩한 예술과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훌륭한 예술과 문화가 접했을 때 생생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술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이세현, 2014, p5).

미술관 교육은 기본적인 기능인 수집이나 전시 기능 자체가 교육매체의 하나이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연장 혹은 자아실현 등의 평생교육의 측면으로 구분되고 연령과 성별, 지적수준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비정규직 교육, 비영리의 사회교육 등 다양한 목적과 특징을 갖고 있는 특수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신보리, 2016). 즉, 이러한 미술관 교육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만 국한 되는 교육적인 효과가 아니며 사회교육의 기능으로서도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적 문

화향상이라는 효과를 지닌다(변자정, 2007)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술관을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인식하고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미술관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을 위하여 미술관은 각 연령과 특성에 맞춘 교육방식과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한국 미술관 교육의 출발

미술관 교육은 시대와 함께 그 역사를 변화시켜왔다. 한국의 미술관 교육의 출발은 1948년 국립미술관 내 ‘미술연구회’ 모임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연구발표회와 일반인을 위한 공개 미술 강좌를 들 수 있다(유미애, 2004). 이후 1954년 경주미술관의 ‘미술관 학교’가 생겨났으며 1970년대 들어서 사립미술관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미술관 교육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였다(김형숙, 2010, pp.178-179) 우리나라 미술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86년 이후이며 그 전에는 모더니즘의 특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가 뒤섞여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인 미술관 교육의 형태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미술관 견학을 적극 권장하고, 꾸준히 미적체험과 감상을 강조하고 있어(변자정, 2007, p.12),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960년대는 민족주의 정치 성향 아래 민족문화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 제도적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통제 안에서 미술관 교육은 정권의 체제유지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표현방식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상황과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족의 주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는

데 이러한 노력은 문화 전반에도 나타나게 되어 미술관직 등 문화 기관의 주요직에 행정 관리자들이 배치되었고 관 주도형 직제가 편성되었다(이명진, 2005) 민족의 주체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은 미술관 전시개최를 통하여 홍보와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에 학예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대 초 학예직을 큐레이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전시회도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전시회는 194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40년대 전시는 196건, 1950년대는 522건, 1960년대에는 906건으로 증가했다. (김달진, 2014) 이 후, 1970년대 초 미술관의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점차 대중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으며 미술관은 정부로부터 지원된 예산으로 인해 대중들의 미술문화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다. 다양한 전시들이 열렸으며 기능성과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이해 중심의 교육이 1970년대부터 서서히 자리 잡았다.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미술관들의 활동이 전시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되었다. 그러나 질 높은 내용으로 교육영역을 넓히기에는 그 내용과 형식이 미비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민 의식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어 국립현대미술관이 전문미술관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미술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교육이 이루어져 왔다(이연수, 1997) 사단법인 ‘현대 미술관회’를 구성하였고, ‘현대 미술관회’가 현대미술아카데미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미술관의 전시기획과 교육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김지호, 2011). 국립현대미술관은 다

른 미술관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미술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술관의 현대적 개념을 반영한 최초의 미술관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미술교양 프로그램, 토요 미술공개강좌 등 여러 가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실제 교육 내용은 전문가와 일반 대중 강좌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현대미술이나 서양미술사에 대한 강좌구성이었다. 또한 이때에 정부의 문화발전 장기정책에 따라 1984년 국립진주미술관 개관, 예술의 전당 신축, 독립기념관 개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신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신축이후 다양한 전시와 교육 유치에 힘썼으며 사회공공기관으로 대중을 위해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술관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의존한 형태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의 미술관은 대부분 사립미술관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전시의 기능보다는 미술관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행사와 기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관전시에 집중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교육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1990년 미술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관람객을 찾아다니며 전시를 개최하고, 관람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관람객과의 교류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정현경, 2002) 90년대 중반에 많은 공립, 사립 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열게 된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성인대상의 강좌를 먼저 개설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 다양한 대상층을 겨냥한 강좌로 확대해 나갔다. 또한 많은 부분 사회교육 차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드물었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이 표현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고 미적 체험 영역이 강조되어 감상과 미술비평, 미술사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미적 감상능력과 미술에 대한 이해 중심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2000년대 들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미술관 교육이 미술관의 주요 역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술관 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2005년에 마련되면서 미술관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이 제정되고 공·사립 미술관의 교육예산이 확보되자 사립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비율이 2005년도 11%에서 2008년 52%로 상승하게 되었다(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09, p.150) 2000년대를 전후로 세계적으로 미술관들은 교육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이며 쾌적한 장소에 교육공간을 설계하는 추세이다. 또한 다양한 층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미술관내에서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기로 자리매김하였다. 미술관과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점차 발전되었으며 학교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들도 미술관내의 교육자(educator)를 중심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확대되는 미술관 교육의 관심에 비하여 미술관 교육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학교와 미술관 교육의 연계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2.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술관 교육

1) 2009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1)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성격

사회변화와 교육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

문에 교육은 사회와 함께 변화를 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여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1)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2)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3)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4)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최경애, 2016 p.13). 2009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의 흥미와 함께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개정되었다. 2009 개정 중학교 기본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⁴⁾

첫째, ‘학년군’, ‘교과군’으로 접근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였다. 둘째,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하여 학습 부담을 적절하게 맞추며 학습 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기초학력의 강화와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여 학습자들의 전인적적인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유도하여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하였다

(2)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4)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p.23-24, www.moe.go.kr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⁵⁾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라 우리나라 학제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보통교육기관으로, 특정영역의 전문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시민생활에 요구되는 자질의 함양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최경애, 2016, 재인용).

(3) 2009 개정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⁶⁾

- ◆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인 진로를 탐색한다.
- ◆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 ◆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5)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4

6)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9

요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목적,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의 결합으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① 심신의 조화적 발달과 적극적인 진로 탐색 ② 기초 능력·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능력 함양 ③ 넓은 세계,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 확장 ④ 다양한 소통능력, 민주시민적 자질과 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

2) 2015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격

교육부의 고시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적용은 2018년 3월 1일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등을 교과 역량으로 삼고 있다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시각적 소통 능력’은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창의-융합 능력’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7)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p.32~33

8) 교육과학기술부, 제 2015-74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5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넷째,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째,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은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개발·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⁹⁾. 중학교 2015년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그에 따른 다양한 미술 활동에 참여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익힌 미술의 기초 개념과 기능을 심화·확대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2)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에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학교 급별 교육 목표가 신설되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념 아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해당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 학교 급별 교육의 목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유지하며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⁰⁾.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내용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9) 교육과학기술부, 제 2015-74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5

10)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 1997-15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총론, 특별 활동-» pp.89-90 참조, 1999.

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¹⁾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3) 2015 개정 중학교 학교 급별 교육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학교 급별 교육목표’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의 하위 항목으로 신설되었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¹²⁾

-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11)2009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과 2015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추구하는 인간상의 교육이념 참조.

12)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p.5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2009 개정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1) 2009 개정과 2015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목표 비교분석

2015개정 교육과정은 2009개정 교육과정을 기초로 수정, 추가, 보완하여 2015년 9월 23일에 발표하였다. 2018년 3월1일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2009개정 교육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성격을 바탕으로, 2018년도 적용에 앞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정, 추가 되어 새롭게 변화된 점들을 2015 교육과정에서 살펴보고 교육과정 미술관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려 한다.

먼저 미술과의 교육목표를 비교 분석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군별 목표로 구성되었던 내용

이 2009 개정 에서는 학교 급별 목표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미술과의 총괄 목표는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괄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하며 미술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술교육의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박현의, 2011).

2015년 개정 중학교 미술과 목표에서는 미술의 효과적인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는 1)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활용하며,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2)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3)미술의 변천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4)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2009개정 미술과 목표와 2015년 개정 미술과 목표를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¹³⁾

13)2009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과 2015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미술과 목표 참조.

[표1] 2009개정과 2015개정 미술과 교육목표

2009	2015
●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 <u>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u>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u>미술과 관련된 직업</u> 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u>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u> 을 통해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u>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며 비평</u>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미술 활동에 <u>주도적으로 참여</u> 하고 <u>문화의 다원적 가치</u> 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첫째,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감수성을 기른다.’로 명시된 부분이 ‘주변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미술관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개정 되었다. 2015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주변 세계의 탐색과 소통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 항목은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자신이 앞장서서 고민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의 배경이 잘 반영된 자유학기제¹⁴⁾와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술관에서도 다양한 학교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부분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로 개정되었다.

14)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둘째,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화(轉化)하는데 있다. 셋째,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http://freesem.moe.go.kr>

미술활동에 있어 교육의 주체를 학생이라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적인 미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미술관 연계교육의 학생에 대한 연구는 자기 주도적인 미술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목표에서 ‘미술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며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개정하였다. 감상영역의 부분으로 명확하게 미술관의 활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작품의 특징, 의미, 비평 모든 것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을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내의 미술관 교육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미술을 생활화하며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에서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개정되었다. 두 번째 내용과 함께 한번 더 주도적인 참여를 중요시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가치 존중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2009 개정과 2015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분석

2009 개정과 2015 개정의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미술관 교육 분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2009 개정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의 [표2], [표3]와 같다.¹⁵⁾

영역	[표2] 2009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체 험	●지각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1. 주변 환경과 대상의 조화에 관하여 이해하기 2. 주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탐구하여 나타내기
	●소통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1. 시각 문화에 반영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2.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표 현	●주제 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1.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설정하기 2.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표현 방법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1.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를 탐색하기 2. 표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표현하기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적용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기 2.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기
감 상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1.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전통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기
	●미술 비평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1.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2. 비평 요소와 기준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3. 관람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전시회를 계획하기

15) 2009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과 2015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참조.

영역	[표3]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체 험	●지각 감각을 통한 인식은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를 깨닫기	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내기 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소통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호 작용하는 도구로서 시각 문화를 형성하기	1.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기
	●연결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계 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1.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기 2.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기
표 현	●발상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 하는 것은 표현의 토대가 된다.	1.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기 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기
	●제작 작품 제작은 주제나 아이디어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 매체 등을 계획하고 표현하며 성찰하는 과정	1.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하기 2.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3. 다양한 표현 효과 탐색과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 선택, 활용하기
감 상	●이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2.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기
	●비평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한 비평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기 2. 미술 작품, 관람자, 전시 장소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기획하기

위에서 제시한 [표2]와 [표3]의 내용을 토대로,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내용 체계의 차이점을 미술관 교육 분야 영역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체험 영역은 현재의 시각문화를 지각하고 소통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벗어나, ‘연결’이라는 영역의 포함과 함께 학습자가 실생활에서도 시각문화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융합을 통한 세계를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결에서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미술관 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체계를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감상 영역에서 ‘미술사’와 ‘미술비평’으로 나뉘던 것이 ‘이해’와 ‘비평’으로 변경되었다. 감상 영역에서 미술관 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작품 전시에 대한 내용이 2015년 개정 ‘이해’부분에서 새롭게 기재되었다. 2009년 개정 감상 영역에서 미술사를 이해하는 부분에 국한되었다면 2015년 개정에서는 미술사를 이해하며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을 이끌어내어 미술관 교육을 위한 바탕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평’부분에서도 전시회 부분이 조금 더 심화 되어 자세히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미적 체험 영역의 진로연계부분과 전체적인 감상 영역에서 미술관 교육의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2015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특징인 진로 탐색 영역의 등장은 미술관 교육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상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 즉, 미술관 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2009년에 비하여 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술관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진로 탐색 영역을 심도 있게 선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2009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과 2015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을 미술관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도구의 하위 영역인 미술관연계교육의 목표달성평가영역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위 영역을 설정 할 수 있었다. 그 하위영역으로는 총7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4] 미술관 연계교육 목표달성평가영역의 기준

1) 진로와의 연계영역
2) 자기 주도적인 활동영역
3) 미술품 표현 특징 영역
4) 미술의 생활화 영역
5) 미술 문화에 대한 태도 영역
6) 미술 감상 비평 영역
7) 미술문화의 다양성 영역

미술관 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내용들을 [표4]로 정리한 결과, 총 7가지의 큰 영역으로 분류가 되었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특히 1) 진로와의 연계영역, 2) 자기 주도적인 활동영역, 6) 미술 감상 비평 영역 영역의 중요도가 2009개정에 비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하위영역들을 연구도구의 세 번째 영역인 미술관연계교육의 목표달성평가영역의 기준으로 삼았다.

III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1.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 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의 관계 및 필요성

미술관교육과 학교미술교육은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상관성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이론적 배경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미술관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목적을 지닌 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와 미술관은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가진 기관이지만 한편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두 기관이 지닌 목적과 내용, 체제와 대상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같은 목적을 지닌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인간교육에, 그리고 평생학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명확히 말하면 학교나 미술관은 ‘인간형성’이란 관점으로 보아서 두 쪽 다 같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교육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¹⁶⁾

미술관과 학교가 교육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박휘락(2006)에 따르면 ‘협력’이란 말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융합’이란 용어가 있다. 서로가 녹아서 함께 되는 것이다.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학교와 미술관이 하나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형성을 위한 학생들의 학습을 공유하기 위해서 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관 교육의 문제점들을 알고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인(Hein, 2012)¹⁷⁾에 따르면, 미술관은 도서관 외에 미술관 간, 그리고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기관과 미술관이 협력하여 미술관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다. 즉 미술관은 “보다 넓은 전시의 특징이었던 유물들을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이질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과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서 이용자들에게 학습의 역할

16)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p.393

17) 조지 하인(George E. Hein) :미국의 교육학자. 자신의 전공을 화학에서 교육으로 바꾸어 교육학자가 된 하인은 레슬리대학(Lesley College)에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대외적으로는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박물관교육·문화활동위원회(CECA)의 간사와 위원장과 미국박물관협회(AAM)의 이사로 활동하며 박물관교육에 힘쓰고 있다.

을 해야 한다. 이렇듯 학교미술교육과 미술관 교육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첫째, 학교미술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미술교육의 한계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 미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전성수(2006)의 연구¹⁸⁾에 따르면 미술은 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내면을 표현하려는 공간예술이자, 조형을 방법으로 하여 내면을 표현하려는 조형예술이며, 시각매체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 정서 등을 시각적 매체로 표현하는 시각예술이다. 이러한 미술의 정의에서 인간의 내면은 표현 주제와 연관되고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표현 방법과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성수(2006)의 정의에 따라 미술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미술교육에서 미술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미술관 교육은 일정한 교과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학교 미술교육의 한계점과 공간적 제약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볼 수 없는 작품을 실제로 접하면서 미술 작품의 원본이 지니고 있는 ‘아우라’를 경험하게 되고 미적 체험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미술관이 주는 복합적인 문화 체험 공간에서의 시각적 경험과 지적인 체험(김미정, 2009, p31)은 학교 미술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상을 구체화 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인에 따르면 미술관이 분명 교육적 기능을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술관이 경이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미술관 이용자들이 전시를 접하는 결과는 학습으로 연결되어 종종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인에 따르면 학습의 결과에 관해서는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8)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2006, pp.150~151

미술관 교육의 결과를 정당화 하고 구체화 하는데 있어 어떠한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박물관 직원들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교육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박물관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종종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다.¹⁹⁾

러스킨(J. Ruskin)에 따르면 미술교육의 기능은 물질적 우주에서 신이 만든 작품의 아름다움을 각 개인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술관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학교미술교육의 성질을 통해 학생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즉, 학교미술교육이 정당한 미술교육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미술관 교육 학습의 결과가 좀 더 긍정적이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인도 될 수 있다.

이렇듯 미술관 교육과 학교미술교육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심화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미술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풍부한 정서적인 체험과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2) 미술관과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유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술관과 학교미술교육의 상관관계는 상호 보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정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

19) 구성주의 박물관 교육론, Learning in the museum, 2012, p.41

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학교와 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현직 학교 교사, 미술관련 교육자 및 교육 전문인 등 학문적 탐구를 위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인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미술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교육지도 능력을 신장시켜 공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다(이보아, 2000, p.125) 다음의 [표5]에서 미술관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5] 학교연계 프로그램 유형. (박회락, 2006, pp.400-402 재구성)

형식	대상	내용
이론중심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	강연,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symposium)
감상중심 프로그램	학생	전시실 안내 및 설명(Guide Tour), 갤러리 대담(Gallery Talk), 학교 방문 교육, 셀프가이드, 학생용 워크시트, 전시 체험, 이동미술관, 비디오상영
	교사	사진감상의 제공, 갤러리 안내(Guide Tour), 교수 및 감상 자료의 제공, 교사연수 프로그램(Teachers Workshop)
체험활동중심 프로그램	학생	워크숍(workshop), 실기 수업, 특별 체험 프로그램, 체험 교실, 현장 관찰 학습, 작가의 공방 방문, 문화탐방, 인턴쉽
이론. 감상. 실기 병행프로그램	학생	감상 및 제작수업, 개방교실, 미술관 학교, 가상 갤러리 전시 프로그램
기타	학생과 교사	교사실 및 교육 자료실 운영, 온라인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대여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술관

각각의 프로그램은 학교와 미술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대상은 학생과 교사가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좀 더 집중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6²⁰⁾에서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담당자를 포함한 총 교육자의 수가 35명이 넘는 곳의 전국 미술관을 조사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국·공립 박물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었으며 사립미술관은 리움,삼성미술관과 대림미술관으로 총 4곳이다. 이 미술관들의 다양한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중 교육대상이 중학생을 포함한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국·공립 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1) 국립 현대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1997년부터 국내 최초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미술관의 현대 미술 작품의 이해와 관람을 통해 감상능력을 높이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였다²¹⁾. 국립현대미술관

20)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6, p.489, <http://www.mcst.go.kr>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화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은 미술관 교육과 공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²⁾.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프로그램을 분석해본 결과 같은 프로그램을 학기별로 진행하고 있었다.

[표6] 국립 현대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2016년9월~2017년7월)²³⁾

유형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 활동	교육목적 및 내용	기간	시간
감상 현대 미술 감상	미술관 감상 교실	중·고등 학교 단체	‘중·고등학교 제량활동과 연계한 미술관체험활동’ ‘미술관 소장품과 연계한 전시작품 감상, 실기창작활동	미술관 소개 미술관 작품 감상 작품 감상기법 응용 창작활동	2016년 9월 5일~ 12월 23일 & 2017년 4월10일~ 7월7일	학 기 중 월, 화, 목, 금 14:00~ 16:00
	PLAY MMCA	초·중· 고등 학교 단체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미술관 현장 학습 지원프로그램	감상과 놀이 를 접목하여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미술관 체험	2016년 9월 1일~ 12월 23일 & 2017년 4월3일~ 7월14일	학기 중 수시 진행
진로 미술 관 직 업 탐 방	미술관 아트스쿨	중, 고등 학교 학급 단체	미술관 경험교육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탐색	진로 탐색 과 목 의 체 험 의 시간	2016년 9월 5일~ 12월 23일 & 2017년 4월6일~ 7월7일	학 기 중 월, 화, 목, 금 14:00~ 16:00
	청소년아트 특강- 작가편	중·고등 학교 및 대학생	다양한 작가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진로 탐색	예술분야 진로 특강	2016년 8월 6일	16:00~ 18:00

22)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23)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고, <http://www.mmca.go.kr>

창작 창 작 위 크 숍	작가 작업실 탐방· 예술가의 방	중 학 생 단체	작업실 탐방 후 작가와의 대화 및 토론	청소년을 위한 작가 작업실 탐방 및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2017년 8월 19일	매주 금 14:00~ 16:30
-----------------------------	-------------------------	-------------	-----------------------------	--	-----------------	--------------------------------

국립 현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감상, 진로, 창작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부분의 활동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전시연계 관람 및 학습, 자율적인 워크북 활동을 통해 미술문화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2)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관객과 소통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예술 공간, 의미 있는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확장, 활성화 하고 있는 기관이다(이동겸, 2014).

[표7] 서울시립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2016년9월~2017년7월)²⁴⁾

유형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 목적 및 활동	교육 내용	기간	시간
자유 학기 제 연계 교육	나를 찾아줘	중학생 단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서울시립미술관의 주요 소장 작품을 감상하기 예술 분야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과정	전시감상 작가탐색 및 자아탐색 나에 대한 표현. 창작활동 큐레이터 업무소개 및 진로 찾기	2017년 4월 19일~ 5월 31일	학 기 중 목·금 10:00- 12:00

24) 서울시립 미술관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고, <http://sema.seoul.go.kr>

	내일의 내일	초·중·고등학교 단체	큐레이터의 업무 소개와 다양한 미술관 관련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 학예사와의 만남	조각공원의 감상을 통한 작품 전시 기획 과정을 이해 조별 전시 기획 발표 및 토론	2017년 4월 19일~5월 31일	학기 중 수·목·금 14:00-16:00
S e M A 찾아가는 미술 감상 교실	학교 감상 및 체험교실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급 단체	미술 작품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주위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열린 사고와 관계 맺는 것을 지향	감상과 연계된 창조적이고 참여적인 체험 수업 미술관 소장 작품 활용 강좌로 미술관 밖 소장품 감상교육	2017년 상반기 & 하반기	학교 수업 시간 기준 2교시
특수 학급 연계 프로그램	덕후 프로젝트 : 몰입하다	초·중·고 특수 학급 단체	“덕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자세 발견 전문성이 부각되는 사회 속 몰입의 경지를 스스로 즐길 수 있음	덕후의습성을 체험하고 다양한 작품 관람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를 체험하는 체험	2017년 5월 16일~5월 30일	매주 화 10:00~12:30
	율동 : 규칙과 운동감	초·중·고 특수 학급	장애학생 학급과 특수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시 연계 미술 감상, 창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	공감각적인 퍼포먼스, 움직임의 에너지로 율동하는 일상의 공간 전시 체험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	2017년 6월13,20, 27 & 7월4일	화 요 일 10:00 ~12:00

서울시립미술관의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진

로교육' 서울시립미술관의 대표적인 외부출장 교육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 초중고 특수학급 단체를 위한 '특수 학급 연계 프로그램' 등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교와 연계하여 공교육과 협력한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립 미술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1) 리움, 삼성미술관

재단법인 리움, 삼성미술관은 1996년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출범 하였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우리나라 고미술 품 전시를 위한 '뮤지움(museum) 1관'과 한국과 외국의 근, 현대 미술 품 전시를 위한 '뮤지움 2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미술관은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교육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연령별, 주제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운영함으로써 타 미술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²⁵⁾ 삼성미술관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연계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상설전과 기획전에는 삼성미술관의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학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심화된 학습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성미술관의 특징으로는 전문화 된 '워크북'의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전시와 연계가 시각문화적인 체험의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심화된 감상 학습의 역량까지 포함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워크북'의 개발로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전시 관람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삼성미술관의 유일한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인 '틴즈워크북'은 단체의 범위가 학교만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실제로 신청하는 단체 중 90% 넘는 단체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가 학교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매튜바니(Matthew Barney, 미국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구속의 드로잉 展을 시작으로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다.

[표8] 삼성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2016년5월~2017년7월)²⁶⁾

유형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 목적 및 활동	교육 내용	기간	시간
청소년 단 체 연 계 프 로 그 램	틴즈 워크북	초5~ 고등 학교 3학년 단체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의 학습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디지털 효과를 활용 한 흥미 요소로 더욱 유익한 교육의 장을 만들	고미술과 현 대 미 술 을 주제로 두 가지 유형의 워크북을 가지고 자기주도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함	2016년 5월 10일 ~ 12월 31일 & 2017년 1월 11일~ 12월 30일	리움 홈 페 이 지 선 착 순 예약
리움 크리 에이 티브- 도슨트 되기	올라퍼 엘리아슨	중 학 생 15명	도슨트에 대한 이해, 리움과 작품 에 대한 미술 이론 수업, 시나리오 구성, 작품 안내 체험으로 구성됨	학생들은 도슨트가 되어가는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 법을 깨달음	2017년 1월 3일~ 1월 31일	매주 화 요 일 15:00~ 17:00

리움의 프로그램은 워크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워크북은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워크북은 전시를 소개하고 전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시는 리움의 전문 도슨트와 함께 감상하며 교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도슨트와 함께 감상 후 개인적으로 한번 더 전시를 관람하며 워크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6) 삼성미술관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고,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

(2) 대림미술관

대림미술관은 대림산업의 대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으로써, 1993년 대전 한림 갤러리로 처음 오픈되었다가 2002년 서울 종로구 통의동으로 이전하면서 대림미술관으로 새롭게 오픈되었다(양경운, 2015). 대림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미술관으로 끌고 들어와 미술관의 공적 가치를 일상성 안에서 녹아들게 만들었으며 이는 2010년경부터 대중들에게 이목을 끌었고 대중들에게 인식된 주류 미술관의 대열에 들어섰다(진미리, 2017). 대림미술관은 일상에서 녹아드는 예술을 모토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림미술관의 운영 방식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일상과 연계된 전시를 통해 대중들의 생활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한다. 또한 이러한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대중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대림미술관의 전시 콘텐츠의 변화는 기존 주류 미술관보다 훨씬 빠르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술과 일상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문화 트렌드를 읽고 전시 대상들을 고려하여 전시를 기획하는 대림미술관은 대중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²⁷⁾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인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하나, 대림미술관만의 특별한 운영 철학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림미술관에서 청소년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틴대리머’와 ‘미술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대림미술관도 삼성미술관과 동일하게 학교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단체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하

27) ‘런다 매카트니 사진전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 헤럴드경제, 2015.03.17

http://news.heraldcorp.co_m/view.php?ud=20150317000512&md=20150317105618_BL

지만 이와 같은 단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연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9] 대림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 (2016년9월~2017년7월)²⁸⁾

유형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 활동	교육목적 및 내용	기간	시간
틴 대 리 머	#말하는 프레임	10인 이 상 의 청 소 년 단체	토드 셀비처럼 우리만의 독특한 시각언어로 표현하자!	작품 속 이야기를 읽어보고, 글을 시각화 하여 이야기 가 담긴 프레임을 제작해보는 감상 심화 교육	2017년 4월 27일~ 10월 29일	사전 문의
	이미지 리더	10인 이 상 의 청 소 년 단체	1.전시 감상: 도슨트와 문답을 통해 작품 감상법 터득하기 2.이미지 읽기: 감상 단계에 따라 이미지 읽어 보기 3.이미지 재구성: 작품을 보고 떠오 른 느낌과 분석 내 용을 이미지로 재구성하기	작품에 대한 느낌을 적고 이미지에 담긴 이야기 를 읽은 다 음, 이미지로 시각화 해보 는 감상 심화 교육	2016년 10월 6일~ 2017년 3월26일	사전 문의

28) 대림미술관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고, www.daelimmuseum.org

진로 미술관 사람들	미술관 사람들	10인 이상의 청소년 단체	1.미술관 직업 탐구: 퀴즈,게임과 영상으로 알아보는 미술관 직업 2.전문가의 눈으로 전시 관람 :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 전시 관람하기 3.미술관 사람 되어보기 : 미션에 따라 기획하고 전시 모형 제작하기	미술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퀴즈, 영상,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전시 관람과 미술관 공간 기획 활동으로 구성된 진로 교육	2017년 4월 27일~ 10월 29일	사전 문의
	미술관 사람들	10인 이상의 청소년 단체	1.미술관 직업 탐구 : 퀴즈, 게임과 영상으로 알아보는 미술관 직업 2.전시 관람 & 현장 인터뷰 :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 전시 관람하기 & 현장에서 만나는 미술관 스텝과의 인터뷰 3.미술관 사람 되어보기 : 더 멋진 미술관을 위한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하기	미술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퀴즈와 게임, 영상, 현장에서 만나는 미술관 스텝과의 인터뷰,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으로 체험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	2016년 10월 6일~ 2017년 3월 26일	사전 문의

대림미술관의 대부분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시 연계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미술관의 교육담당자에 의해 교육이 진행된다. 실제 교사가 관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대림미술관에서 학교와 교육과정내용과의 연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된다면 학교와의 연계로 인한 교류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대림미술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V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총 64개의 중학교를 조사하여 수집된 86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68부를 제외하고 779명(학생 686명, 교사 9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의 성별은 남자 406명, 여자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07명, 2학년 198명, 3학년 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상위권 194명, 중상위권 173명, 중위권 182명, 중하위권 87명, 하위권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유형은 국립 194명, 공립 177명, 사립 3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경제적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는 상(上) 307명, 중(中) 327명, 하(下)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문화시설 구비수준을 인식하는 정도는 상(上) 161명, 중(中) 366명, 하(下)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성별은 남자 12명, 여자 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13명, 30대 58명, 40대 14명, 50대 이상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0~5년 26명, 6~10년 46명, 11~20년 12명, 20년 이상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 40명, 석사과정 30명, 석사졸업 21명, 박사과정 1명, 박사졸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유형은 국립 27명, 공립 44명, 사립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경제적 수준은 상(上) 34명, 중(中) 52명, 하(下)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문화시설 구비수준은 상(上) 11명, 중(中) 48명, 하(下)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79)

구분		특성	N	%
학생 (N=686)	성별	남	406	59.2
		여	280	40.8
	학년	1학년	107	15.6
		2학년	198	28.9
		3학년	381	55.5
	성적	상위권	194	28.3
		중상위권	173	25.2
		중위권	182	26.5
		중하위권	87	12.7
		하위권	50	7.3
	학교설립유형	국립	194	28.3
		공립	177	25.8
		사립	315	45.9
	학교 주변 경제적 수준	상	307	44.8
		중	327	47.7
		하	52	7.6
교사 (N=93)	성별	남	12	12.9
		여	81	87.1
	연령	20대	13	14.0
		30대	58	62.4
		40대	14	15.1
		50대 이상	8	8.6
	경력	0-5년	26	28.0
		6-10년	46	49.5
		11-20년	12	12.9
		20년 이상	9	9.7
	학력	학사	40	43.0
		석사과정	30	32.3
		석사졸업	21	22.6
		박사과정	1	1.1
		박사졸업	1	1.1
	학교설립유형	국립	27	29.0
		공립	44	47.3
		사립	22	23.7
	학교주변경제적수준	상	34	36.6
		중	52	55.9
		하	7	7.5
	학교주변문화시설구비수 준	상	11	11.8
		중	48	51.6
		하	34	36.6

2) 측정도구

가.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에서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들 중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된 문항(1, 2, 3, 9, 10, 11, 12, 13, 14번)을 선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나.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들 중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된 문항(1, 4, 5, 6, 7, 8, 9, 10, 11, 12, 13번)을 선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다. 미술관 연계 교육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 평가

미술관 연계 교육 교육과정 목표 달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되었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97로 나타났다

라.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등의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들 중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된 문항(1, 4, 5)를 선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연구 도구 선정과 내용타당도 검사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검사도구 문항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분석 연구(이성도외, 2013)와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학교·미술관 연계 수업지도방안 연구(박지민, 2016), 그리고 (이동검, 2014)의 미술관 교육과 학교미술수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추출한 문항들과 특징들을 수정·보완하여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 형식으로 수정하여 제작하였고, 이를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김규연, 2013)과 (신화윤, 2012)이 제시한 2009 개정 중등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내 미술관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여 평가의 기본 틀로 세웠고 상기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세부 목록을 수정하였다.

제작된 문항은 현직 미술교사 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각 문항에 대한 설명들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불충분하고, 실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현직 미술교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현직 미술교사 4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를 통하여 한 번 더 수정·보완을 통해 도구를 완성하였다.

(2) 설문지 제작

설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제작되었다.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로 모든 항목은 일치하나 개인 신상과 배경에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설문지를 교사용과 학생용 두 종류로 제작하였다.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 도구의 하위 영역은 [표11]와 같고, 설문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11] 연구 도구의 하위 영역

영역	대상	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생	·성별 ·학년 ·학업성적 ·학교형태 ·주변경제수준 ·주변문화시설	7
	교사	·성별 ·연령 ·교육경력 ·최종학력 ·근무학교형태 ·주변경제수준 ·주변문화시설	7
실태 및 만족도	공통	·교육현황 ·연계상황 ·행정현황 ·지원현황	34
교육과정 목표 달성 평가	공통	·미술문화 ·문화공간 ·미술사 ·다양성 ·비평 ·표현 ·진로	16
참여 지속 의도	공통	·횟수 ·지원 ·참여의도	6

(3) 설문지 배부

설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을 따로 배부 하였다. 먼저 교사용은 2017년 1월 31일에 서울지역 현직교사에게 60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총 3부이다. 이 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직접 서울지역 64개의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에 1부 또는 2부씩 배부하여 총 90부를 회수하였다. 2017년 1월 31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총 회수된 교사의 설문지는 총 93부이며 이중 3부가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였다. 학생용은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지역 4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총 867부를 회수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총 779부 (학생용 686부, 교사용 93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문항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V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구 결과

1.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의 인식의 차이 분석

교사와 학생이 인식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문항별 기술통계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문항별 기술통계치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교의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었으며 ($M=2.69$), 학교가 학교 게시판에 통해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적게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3.10$). 교사들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술교육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었으며($M=2.13$), 학교가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적게 동의하고 있었다($M=3.44$). 기본적으로 낮은 학생들의 미술관 학교연계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교사들도 현재 학교에서 미술관 연계에 대해 행정적으로 잘 지원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12]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문항별 기술통계

문항내용	학생		교사	
	<i>M</i>	<i>SD</i>	<i>M</i>	<i>SD</i>
현재 학교에서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69	1.21	2.48	.85
귀하는 학교 내 교실에서 실시하는 미술수업만으로도 미술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9	1.21	3.03	.87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술교육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75	1.14	2.13	.66
미술관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적절하였습니까?	2.84	1.08	2.43	.79
미술관 측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안내와 정보 자료를 귀하에게 충분히 제공하였습니까?	2.82	1.03	2.41	.74
학생들의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술관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까?	2.81	1.02	2.33	.71
귀하의 학교는 평소 학교 내 게시판 등에 미술관 전시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3.10	1.05	2.77	.84
귀하의 학교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3.06	1.03	3.44	.81
귀하의 학교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3.04	1.05	3.40	.95

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학생과 교사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를 [표13]와 [표

14]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에 학교에서 단체로 미술관 관람을 포함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0회가 380명, 1회가 235명, 2회가 46명, 3회가 11명, 4회 이상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학교의 자율체험 형식의 미술관 연계 교육 실시 횟수는 0회 438명, 1회 165명, 2회 49명, 3회 14명, 4회 이상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견학 경험이 있는 미술관은 리움 12명, 국립현대미술관 78명, 서울시립미술관 38명, 대림미술관 2명, 기타 5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은 전시물 관람 255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167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156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334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190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99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40명, 기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흥미와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은 전시물 관람 203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48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48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219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106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2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0명, 기타 1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에 학교에서 단체로 미술관 관람을 포함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0회 22명, 1회 55명, 2회 15명, 3회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학교의 자율체험 형식의 미술관 연계 교육 실시 횟수는 0회 22명, 1회 49명, 2회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견학 경험이 있는 미술관은 리움 27명, 국립현대미술관 37명, 서울시립미술관 8명, 대림미술관 2명, 기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은 전시물 관람 91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89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75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31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14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23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1명, 기타 3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장 흥미와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은 전시물 관람 42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38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12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11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5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7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확연히 다른 이유는 학생은 중학교의 3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1번 또는 0번의 미술관 단체 관람의 기회가 주어지고 조사한 교사들의 경력은 70% 넘는 교사들이 보통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력 안에서 한번의 관람 횟수는 주어졌던 것이다. 이로써 학교에서 4.5년에 걸쳐 한번 씩 미술관 방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의 “일년에 1회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을 권장한다.”는 방침에 준하지 않은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표13] 학생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N=686)

구분	특성	N	%
학교의 미술관 연계 교육 실시 횟수	0회	380	55.9
	1회	235	34.6
	2회	46	6.8
	3회	11	1.6
	4회 이상	8	1.2
학교의 자율체험 형식의 미술관 연계 교육 실시 횟수	0회	438	64.4
	1회	165	24.3
	2회	49	7.2
	3회	14	2.1
	4회 이상	14	2.1
단체 견학 경험이 있는 미술관	리움	12	1.9
	국립현대미술관	78	12.4
	서울시립미술관	38	6.0
	대림미술관	2	.3
	기타	501	79.4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경험한 프로그램 (복수 응답)	전시물 관람	255	38.8
	도슨트의 작품 설명 칭취	167	25.4
	미술관 활동지 활용	156	23.7
	개인별 작품 만들기	334	50.8
	공동체 작품 만들기	190	28.9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99	15.0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40	6.1
	기타	159	24.2
가장 흥미와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 (복수 응답)	전시물 관람	203	31.9
	도슨트의 작품 설명 칭취	48	7.5
	미술관 활동지 활용	48	7.5
	개인별 작품 만들기	219	34.4
	공동체 작품 만들기	106	16.7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2	1.9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0	1.9
	기타	130	20.4

[표14] 교사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N=93)

구분	특성	N	%
학교의 미술관 연계 교육 실시 횟수	0회	22	23.7
	1회	55	59.1
	2회	15	16.1
	3회	1	1.1
학교의 자율체험 형식의 미술관 연계 교육 실시 횟수	0회	22	23.7
	1회	49	52.7
	2회	22	23.7
단체 견학 경험이 있는 미술관	리움	27	30.3
	국립현대미술관	37	41.6
	서울시립미술관	8	9.0
	대림미술관	2	2.2
	기타	15	16.9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경험한 프로그램 (복수 응답)	전시물 관람	91	27.0
	도슨트의 작품 설명	89	26.4
	칭취	75	22.3
	미술관 활동지 활용	31	9.2
	개인별 작품 만들기	14	4.2
	공동체 작품 만들기	23	6.8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1	3.3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3	.9
	기타		
가장 흥미와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 (복수 응답)	전시물 관람	42	45.2
	도슨트의 작품 설명	38	40.9
	칭취	12	12.9
	미술관 활동지 활용	11	11.8
	개인별 작품 만들기	5	5.4
	공동체 작품 만들기	7	7.5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4	4.3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기타		

다.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과 교사 간에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15]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6.81$, $p<.001$). 학생은 ‘보통이다’ 211명, ‘그렇다’ 197명, ‘매우 그렇다’ 122명, ‘그렇지 않다’ 79명, ‘전혀 그렇지 않다’ 75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교사는 ‘그렇다’ 46명, ‘보통이다’ 25명, ‘그렇지 않다’ 14명, ‘매우 그렇다’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미술교육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122(17.8)	197(28.8)	211(30.8)	79(11.5)	75(11.0)	χ^2	26.81***
교사	8(8.6)	46(49.5)	25(26.9)	14(15.1)	0(0)	p	.000

*** $p<.001$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미술수업으로 미술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미술수업으로 미술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표16]에 제시하였으며,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0.28$, $p<.001$). 학생은 ‘그렇다’ 196명, ‘보통이다’ 191명, ‘매우 그렇다’ 128명, ‘그렇지 않다’ 105명, ‘전혀 그렇지 않다’ 66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보통이다’ 36명, ‘그렇지 않다’ 32명, ‘그렇다’ 21명, ‘매우 그렇다’ 4명으로 나타났다.

[표16] 학교 미술수업으로 미술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128(18.7)	196(28.6)	191(27.8)	105(15.3)	66(9.6)	χ^2	40.28***
교사	4(4.3)	21(22.6)	36(38.7)	32(34.4)	0(0)	p	.000

*** $p < .001$

다.와 라.의 인식차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어진 학교 미술 수업시간의 만족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만족도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의 미술 수업시간의 충분한지에 대한 여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 미술수업으로 미술교육의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특히 교사의 경우는 34.4%의 교사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로써 교사들은 미술시간 외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 학교 미술교육이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미술교육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17]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4.53$, $p<.001$). 학생은 보통이다 249명, 그렇다 190명, 매우 그렇다 98명, 그렇지 않다 78명, 전혀 그렇지 않다 69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4명, 보통이다 24명, 매우 그렇다 14명,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비해서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17] 학교 미술교육이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98(14.3)	190(27.8)	249(36.4)	78(11.4)	69(10.1)	χ^2 44.53***
교사	14(15.1)	54(58.1)	24(25.8)	1(1.1)	0(0)	p .000

*** $p < .001$

바. 미술관 관람 및 참여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관람 및 참여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18]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1.5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66명, 그렇다 113명, 매우 그렇다 92명, 전혀 그렇지 않다 75명, 그렇지 않다 40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보통이다 42명, 그렇다 36명, 매우 그렇다 11명, 그렇지 않다 3명,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단체 비용은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할인된 가격에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봐서 학생과 교사 두 그룹 모두 관람 및 참여 비용에 관해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도구 개발을 위한 인터뷰 진행에서도 실제 많은 교사와 학생이 재정적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관람료가 아닌 교통, 식사와 같은 외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8] 미술관 관람 및 참여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92(13.4)	113(16.5)	366(53.4)	40(5.8)	75(10.9)	χ^2 31.54***
교사	11(11.8)	36(38.7)	42(45.2)	3(3.2)	1(1.1)	p .000

*** $p < .001$

사. 미술관에서 프로그램 참여 안내와 정보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에서 프로그램 참여 안내와 정보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19]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2.42$,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8명, 그렇다 159명, 매우 그렇다 69명, 전혀 그렇지 않다 67명, 그렇지 않다 39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5명, 보통이다 34명, 매우 그렇다 8명, 그렇지 않다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프로그램 참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9(10.1)	159(23.3)	348(51.0)	39(5.7)	67(9.8)	χ^2	32.42***
교사	8(8.6)	45(48.4)	34(36.6)	6(6.5)	0(0)	p	.000

*** $p<.001$

아. 학생들이 관람하는데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관람하는데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0]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7.01$,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2명, ‘그렇다’ 163명, ‘매우 그렇다’ 66명, ‘전혀 그렇지 않다’ 66명, ‘그렇지 않다’ 34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8명, ‘보통이다’ 32명, ‘매우 그렇다’ 9명, ‘그렇지 않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미술관 관람 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6(9.7)	163(23.9)	352(51.7)	34(5.0)	66(9.7)	χ^2 37.01***
교사	9(9.7)	48(51.6)	32(34.4)	4(4.3)	0(0)	p .000

*** $p < .001$

사.와 아.의 인식차이를 비교해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 미술관 측에서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는다는 만족감과 서비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술관 측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 학교가 학생들에게 게시판을 이용하여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게시판을 이용하여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1]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1.69$,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23명, ‘그렇지 않다’ 117명, ‘그렇다’ 112명, ‘전혀 그렇지 않다’ 82명, ‘매우 그렇다’ 52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보통이다’ 42명, ‘그렇다’ 31명, ‘그렇지 않다’ 14명, ‘매우 그렇다’ 4명, ‘매우 그렇지 않다’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와 아.의 인식차이에서 만족되는 미술관 측의 정보제공 능력과 대비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미술관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관과 학교연계 교육에 관한 학교 측의 소극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표21] 게시판을 이용하여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52(7.6)	112(16.3)	323(47.1)	117(17.1)	82(12.0)	χ^2 21.69***
교사	4(4.3)	31(33.3)	42(45.2)	14(15.1)	2(2.2)	p .000

*** $p < .001$

차. 학교가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교가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2]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4.40$,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0명, ‘그렇다’ 114명, ‘그렇지 않다’ 101명, ‘전혀 그렇지 않다’ 79명, ‘매우 그렇지’ 51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지 않다’ 42명, ‘보통이다’ 32명, ‘그렇다’ 13명, ‘전혀 그렇지 않다’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2] 학교가 연계 교육 필요시 행정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51(7.4)	114(16.6)	340(49.6)	101(14.7)	79(11.5)	χ^2 54.40***
교사	0(0)	13(14.0)	32(34.4)	42(45.2)	6(6.5)	p .000

*** $p < .001$

카. 학교가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교가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3]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6.85$,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30명, ‘그렇다’ 119명, ‘그렇지 않다’ 101명, ‘전혀 그렇지 않다’ 77명, ‘매우 그렇지’ 56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지 않다’ 39명, ‘보통이다’ 26명, ‘그렇다’ 18명, ‘전혀 그렇지 않다’ 9명, ‘매우 그렇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3] 학교가 연계 교육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56(8.2)	119(17.4)	330(48.3)	101(14.8)	77(11.3)	χ^2 46.85***
교사	1(1.1)	18(19.4)	26(28.0)	39(41.9)	9(9.7)	p .000

*** $p<.001$

차.와 카.의 인식비교를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지만, 학교와 미술관을 연결하는 주체인 교사가 그 심각성을 더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의 차이 분석

학생과 교사가 인식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치를 [표24]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교 미술교사가 미술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58$), 학생들의 미술관 내 프로그램 참여가 미술작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적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79$).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미술관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1.71$), 학교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적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65$).

이는 현 학교사정의 실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 미술관을 가는 이유가 “교사가 원해서”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미술관 방문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미술관내 프로그램 참여에서 미술작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술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미술관 방문 전 단순히 견학이 아닌 정확한 목적과 방문 이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짐작 할 수 있다.

[표24]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

문항내용	학생		교사	
	<i>M</i>	<i>SD</i>	<i>M</i>	<i>SD</i>
귀하께서는 미술관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8	1.03	1.71	.58
귀하의 학교 미술교사는 미술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8	1.01	2.01	.60
귀 학교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2.69	.90	2.65	.83
미술관 연계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73	.98	2.18	.72
미술관 프로그램은 학교미술수업과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2.79	.98	2.21	.72
학생들의 미술관 내 프로그램 참여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2.79	1.01	2.45	.60
연계교육으로 방문한 미술관의 전시물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습니까?	2.77	.96	2.59	.66
미술관 내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는 학습하는데 적당하였습니까?	2.79	.96	2.45	.60
미술관 내 관람 및 활동 참여에 소요된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2.77	.97	2.38	.61
박물관 내 교육 진행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까?	2.69	.96	2.26	.71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2.67	.98	2.14	.70

나. 미술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학생과 교사의 미술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를 [표 25]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

로그램들 중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전시물 관람 320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158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156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254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171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81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32명, 기타 1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술 연계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전시물 관람 358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195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158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296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257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43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19명, 기타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 중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전시물 관람 72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78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48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23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13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4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술 연계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전시물 관람 31명,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35명, 미술관 활동지 활용 27명, 개인별 작품 만들기 40명, 공동체 작품 만들기 44명,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47명,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 모두 미술관의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시물 관람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은 개인별 작품 만들기에 흥미를 좀 더 보이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미술관 활동지 활용을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활동지 활용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이지만, 학생들은 심화된 개인적인 체험을 원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계 미술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서는 학생은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교사는 가장 높게 응답했다. 실

제로 학생들은 이 활동에 대해 흥미를 낮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생과 교사의 교육내용 선호도에 대해 불일치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25] 미술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N=779)

그룹	구분	특성	N	%
학생 (N=686)	미술관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 (복수 응답)	전시물 관람	320	48.7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158	24.0
		미술관 활동지 활용	156	23.7
		개인별 작품 만들기	254	38.7
		공동체 작품 만들기	171	26.0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81	12.3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32	4.9
		기타	168	25.6
	미술 연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활동 (복수응답)	전시물 관람	358	53.5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195	29.1
		미술관 활동지 활용	158	23.6
		개인별 작품 만들기	296	44.2
		공동체 작품 만들기	257	38.4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43	21.4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19	17.8
		기타	109	16.3
교사 (N=93)	미술관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 (복수 응답)	전시물 관람	72	77.4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78	89.3
		미술관 활동지 활용	48	51.6
		개인별 작품 만들기	23	24.7
		공동체 작품 만들기	13	14.0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14	15.1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13	14.0
		기타	109	16.3
	미술 연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활동 (복수응답)	전시물 관람	31	33.3
		도슨트의 작품 설명 청취	35	37.6
		미술관 활동지 활용	27	29.0
		개인별 작품 만들기	40	43.0
		공동체 작품 만들기	44	47.3
		학생들끼리의 토론 활동	47	50.5
		교육진행자 등과의 토론 활동	55	59.1
		기타	109	16.3

다. 미술관 연계교육의 필요성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의 필요성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6]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16.4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21명, ‘그렇다’ 157명, ‘매우 그렇다’ 82명, ‘그렇지 않다’ 76명, ‘전혀 그렇지 않다’ 48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그렇다’ 54명, ‘매우 그렇다’ 33명, ‘보통이다’ 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전체적으로 미술관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긴 했지만 교사만큼의 적극적인 긍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가. 미술관 연계교육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에서 나타나듯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생이 아직 그렇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26] 미술관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82(12.0)	157(23.0)	321(46.9)	76(11.1)	48(7.0)	χ^2 116.44***
교사	33(35.5)	54(58.1)	6(6.5)	0(0)	0(0)	p .000

*** $p<.001$

라. 미술관 연계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차이

학교에서 미술관 연계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7]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93.70$, $p<.001$). 학생은 ‘학생들에게 문화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165명, ‘특정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해’ 113명,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 프

로그래의 참여를 위해' 107명, '학교가 보유하지 못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106명, '기타' 83명,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학습하기 위해' 8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학교가 보유하지 못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49명, '특정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해' 20명,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학습하기 위해' 12명, '학생들에게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5명,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1명, '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을 문화시설의 일환으로 느끼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을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목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이 25.2%가 된다는 것은 미술관 연계교육이 학교의 교육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있다. 이와 반면에 '학교가 보유하지 못한 자원의 활용'이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이유에 있다고 대답한 55.7%의 교사들은 미술관 연계교육에 대해 좀 더 학교의 교육내용과 연관시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7] 미술관 연계교육을 시행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주제탐구	자원활용	프로그램 참여	다양성 학습	접근성	기타	분석 결과
학생	113(17.3)	106(16.2)	107(16.4)	80(12.2)	165(25.2)	83(12.7)	χ^2 93.70***
교사	20(22.7)	49(55.7)	1(1.1)	12(13.6)	5(5.7)	1(1.1)	p .000

*** $p < .001$

마. 미술교사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

학교 미술교사가 미술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8]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5.36$,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06명, ‘그렇다’ 192명, ‘매우 그렇다’ 106명, ‘그렇지 않다’ 39명, ‘전혀 그렇지 않다’ 39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63명, ‘매우 그렇다’ 15명, ‘보통이다’ 14명,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8] 미술교사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106(15.5)	192(28.2)	306(44.9)	39(5.7)	39(5.7)	χ^2 65.36** *
교사	15(16.1)	63(67.7)	14(15.1)	1(1.1)	0(0.0)	p .000

*** $p<.001$

바.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29]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2.11$, $p=.017$). 학생은 ‘보통이다’ 367명, ‘그렇다’ 169명, ‘매우 그렇다’ 74명, ‘그렇지 않다’ 47명, ‘전

혀 그렇지 않다' 28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보통이다' 42명, '그렇다' 29명, '그렇지 않다' 13명, '매우 그렇다'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9]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4(10.8)	169(24.7)	367(53.6)	47(6.9)	28(4.1)	χ^2	12.11*
교사	9(8.37)	29(31.5)	42(45.7)	13(14.1)	0(0.0)	p	.017

* $p < .05$

마.와 바.에서 인식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학생과 교사 모두가 느끼는 교사의 연계교육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이 연계교육에 임하는 태도의 긍정성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53.6%로 높게 나온 반면, 교사는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는 실제 학생이 느끼는 연계교육의 긍정성보다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연계교육의 긍정성이 좀 더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 미술관 연계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0]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2.3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7명, '그렇다' 161명, '매우 그렇다' 81명, '그렇지 않다' 51명,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3명, '보통이다' 25명, '매우 그렇다' 13명, '그렇지 않다' 1명,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연계

교육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보다 교사가 예상하고 있는 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 미비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표30] 미술관 연계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81(11.8)	161(23.5)	347(50.7)	51(7.5)	44(6.4)	χ^2 52.34***
교사	13(14.0)	53(57.0)	25(26.9)	1(1.1)	1(1.1)	p .000

*** $p < .001$

아. 미술관 프로그램이 학교미술수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프로그램이 학교미술수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1]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7.59$,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39명, ‘그렇다’ 171명, ‘매우 그렇다’ 66명, ‘그렇지 않다’ 62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2명, ‘보통이다’ 26명, ‘매우 그렇다’ 12명, ‘그렇지 않다’ 1명,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느끼는 학교미술수업과의 연관성보다 교사가 느끼는 연관성이 더 높음을 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미술관 교육의 사전 교육의 미비함과 학생들이 미술관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명확성이 낮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31] 미술관 프로그램이 학교수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6(9.6)	171(25.0)	339(49.5)	62(9.1)	47(6.9)	χ^2	47.59***
교사	12(13.0)	52(56.5)	26(28.3)	1(1.1)	1(1.1)	p	.000

*** $p < .001$

자. 미술관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술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2]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2.25$,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27명, ‘그렇다’ 169명, ‘매우 그렇다’ 72명, ‘그렇지 않다’ 61명, ‘전혀 그렇지 않다’ 53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4명, ‘보통이다’ 43명, ‘매우 그렇다’ 4명,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가장 낮은 긍정의 응답률을 보인 자.를 통해 실제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낮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미술관교육의 효과를 파악할 때,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생들이 조금 더 미술 작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선행학습과 미술관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표32]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2(10.6)	169(24.8)	327(47.9)	61(8.9)	53(7.8)	χ^2 32.25***
교사	4(4.3)	44(47.8)	43(46.7)	1(1.1)	0(0.0)	p .000

*** $p < .001$

차. 미술관의 전시물이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연계교육으로 방문한 미술관의 전시물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3]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5.81$, $p=.003$). 학생은 ‘보통이다’ 361명, ‘그렇다’ 162명, ‘매우 그렇다’ 68명, ‘전혀 그렇지 않다’ 48명, ‘그렇지 않다’ 45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보통이다’ 49명, ‘그렇다’ 35명, ‘그렇지 않다’ 5명, ‘매우 그렇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그룹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사들은 연구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인터뷰 진행에서 ‘미술관과 연계교육을 시행할 때 학생들의 교과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시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점으로 보아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전시물을 전시하는 것이 목적중의 하나인 국내 미술관 사정상 미술관 측에서도 전시물을 학생들의 수준에만 맞춰 들여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표33] 미술관의 전시물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8(9.9)	162(23.7)	361(52.8)	45(6.6)	48(7.0)	χ^2	15.81***
교사	4(4.3)	35(37.6)	49(52.7)	5(5.4)	0(0.0)	p	.003

*** $p < .001$

카.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가 학습에 적당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내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가 학습에 적당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4]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1.33$,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63명, ‘그렇다’ 161명, ‘매우 그렇다’ 65명, ‘전혀 그렇지 않다’ 49명, ‘그렇지 않다’ 46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3명, ‘보통이다’ 35명, ‘그렇지 않다’ 4명, ‘매우 그렇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34]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가 학습에 적당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5(9.5)	161(23.5)	363(53.1)	46(6.7)	49(7.2)	χ^2	51.33***
교사	1(7.9)	53(25.6)	35(47.6)	4(6.0)	0(0.0)	p	.000

*** $p < .001$

타. 미술관 관람 및 활동 참여에 소요된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내 관람 및 활동 참여에 소요된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5]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0.00$,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6명, ‘그렇다’ 162명, ‘매우 그렇다’ 69명, ‘전혀 그렇지 않다’ 48명, ‘그렇지 않다’ 46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9명, ‘보통이다’ 38명, ‘매우 그렇다’ 5명,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35]미술관 관람에 소요된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9(10.1)	162(23.8)	356(52.3)	46(6.8)	48(7.0)	χ^2	40.00***
교사	5(5.4)	49(52.7)	38(40.9)	1(1.1)	0(0.0)	p	.000

*** $p<.001$

카.와 타.에서 보면 연계 교육수업시간의 배분을 위해 전시 작품의 내용과 개수는 중요하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더라도 내용이 너무 심오하거나 간단하면 교사가 미리 생각해온 수업시간의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전시를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짧아져도 다수의 학생을 통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관람 소요시간과 작품내용과 개수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 미술관 교육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박물관 내 교육 진행자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6]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7.97$,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63명, ‘그렇다’ 171명, ‘매우 그렇다’ 81명, ‘전혀 그렇지 않다’ 46명, ‘그렇지 않다’ 25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0명, ‘보통이다’ 29명, ‘매우 그렇다’ 11명, ‘그렇지 않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36] 교육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81(11.8)	171(24.9)	363(52.9)	25(3.6)	46(6.7)	χ^2 37.97***
교사	11(11.8)	50(53.8)	29(31.2)	3(3.2)	0(0.0)	p .000

*** $p<.001$

하. 미술관 교육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7]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2.95$,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1명, ‘그렇다’ 178명, ‘매우 그렇다’ 85명,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 ‘그렇지 않다’ 34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2명, ‘보통이다’ 24명, ‘매우 그렇다’ 15명, ‘그렇지 않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37] 교육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81(11.8)	171(24.9)	363(52.9)	25(3.6)	46(6.7)	χ^2 42.95***
교사	11(11.8)	50(53.8)	29(31.2)	3(3.2)	0(0.0)	p .000

*** $p < .001$

과.와 하.에서 보여지듯 미술관내 교육 담당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2013)에 따르면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의 에듀케이터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미술관에서도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미술관내 교육담당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활발한 연계를 위해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하2. 미술관 연계 교육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향후 진행될 미술관 연계 교육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8]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6.80$, $p<.001$). 학생은 ‘직접견학’ 262명, ‘직접 견학을 통한 미술관 내 활동’ 227명,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한 학교 내 통신교육’ 128명, ‘학교 내 통신교육과 교사가 지도하는 실습의 병행’ 60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직접 견학을 통한 미술관 내 활동’ 75명, ‘직접 견학’ 11명, ‘학교 내 통신교육과 교사가 지도하는 실습의 병행’ 4명,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한 학교 내 통신교육'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92.4%와 학생의 72.2%가 직접견학 또는 직접견학을 통한 미술관 내 활동을 적절한 미술관 연계교육으로 인식하므로 현재의 미술관 연계 교육의 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학생의 27.8%가 통신교육과 병행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38] 가장 적절한 미술관 연계 교육의 인식 차이 비교 명(%)

	직접견학	미술관 활동	통신교육	병행교육	분석 결과
학생	262(38.7)	227(33.5)	128(18.9)	60(8.9)	χ^2 76.80***
교사	11(11.8)	75(80.6)	3(3.2)	4(4.3)	p .000

*** $p < .001$

3.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

1) 미술관 연계 교육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 평가

학생과 교사가 인식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 평가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두 그룹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스스로 미술관을 관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이 미술관 및 전시회 등을 스스로 관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39]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9.9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1명, ‘그렇다’ 178명, ‘매우 그렇다’ 85명,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 ‘그렇지 않다’ 34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2명, ‘보통이다’ 24명, ‘매우 그렇다’ 15명, ‘그렇지 않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내의 지역 문화 공간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느끼는 학생의 자립적인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적어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9] 스스로 미술관 관람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1(8.9)	105(15.3)	308(45.0)	104(15.2)	107(15.6)	χ^2 49.94***
교사	1(1.1)	38(40.9)	40(43.0)	14(15.1)	0(0.0)	p .000

*** $p<.001$

나. 학생들이 미술작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이 미술관 및 전시회 등을 스스로 관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0]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9.39$,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33명, ‘그렇다’ 164명, ‘매우 그렇다’ 104명, ‘전혀 그렇지 않다’ 46명, ‘그렇지 않다’ 35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7명, ‘보통이다’ 42명, ‘매우 그렇다’ 2명, ‘그렇지 않다’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문화(유산) 존중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학생이 인식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소중함이 교사가 느끼는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미술작품에 대한 귀중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데, 교과서를 통해 작품만 보는 것보다 미술관에서 방어벽을 넘어 작품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학생이 미술 작품에 대해 더욱 소중히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40] 학생들이 미술작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104(15.2)	164(24.0)	333(48.8)	35(5.1)	46(6.7)	χ^2 39.39***
교사	2(2.2)	47(25.3)	42(45.2)	2(2.2)	0(0.0)	p .000

*** $p<.001$

다.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1]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0.90$,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8명, ‘그렇다’ 128명, ‘매우 그렇다’ 78명, ‘그렇지 않다’ 68명, ‘전혀 그렇지 않다’ 61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2명, ‘보통이다’

33명, ‘매우 그렇다’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을 얼마만큼 가깝게 느끼고 생활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을 대체적으로 좋아하게 되었다고 나타난다. 교사가 느끼는 학생의 미술 작품 감상 흥미에는 못 미치지만 미술관 연계 교육으로 학생의 감상활동의 태도가 좋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41]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8(11.4)	128(18.7)	348(51.0)	68(10.0)	61(8.9)	χ^2	70.90***
교사	8(8.6)	52(55.9)	33(35.5)	0(0.0)	0(0.0)	p	.000

*** $p < .001$

라.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2]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5.61$,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68명, ‘그렇다’ 133명, ‘매우 그렇다’ 71명, ‘그렇지 않다’ 62명, ‘전혀 그렇지 않다’ 52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1명, ‘보통이다’ 36명, ‘매우 그렇다’ 12명, ‘그렇지 않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느끼는 감상태도 향상은 교사가 느끼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표42]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1(10.3)	133(19.4)	368(53.6)	62(9.0)	52(7.6)	χ^2 35.61***
교사	12(12.9)	41(44.1)	36(38.7)	4(4.3)	0(0.0)	p .000

*** $p < .001$

마. 연계교육이 미술품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미술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3]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1.81$,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9명, ‘그렇다’ 167명, ‘매우 그렇다’ 69명, ‘그렇지 않다’ 54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1명, ‘보통이다’ 33명, ‘매우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연계교육으로 인해 다른 나라 미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은 실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함으로써 미술품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좀 더 용이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표43] 연계교육이 미술품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9(10.1)	167(24.3)	349(50.9)	54(7.9)	47(6.9)	χ^2 41.81***
교사	7(7.5)	51(54.8)	33(35.5)	2(2.2)	0(0.0)	p .000

*** $p < .001$

바. 학생들의 문화적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관람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전시된 자료를 읽거나 찾아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4]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2.3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9명, ‘그렇다’ 167명, ‘매우 그렇다’ 69명, ‘그렇지 않다’ 54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1명, ‘보통이다’ 33명, ‘매우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4] 문화적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2(10.5)	127(18.5)	364(53.1)	71(10.3)	52(7.6)	χ^2 41.49***
교사	2(2.2)	42(45.2)	40(43.0)	9(9.7)	0(0.0)	p .000

*** $p<.001$

사. 학생들의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작품이 탄생한 사회의 특성이 작품에 반영됨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5]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2.07$,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60명, ‘그렇다’ 142명, ‘매우 그렇다’ 77명, ‘그렇지 않다’ 60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 순으로

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2명, ‘보통이다’ 33명, ‘매우 그렇다’ 9명, ‘그렇지 않다’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5]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7(11.2)	142(20.7)	360(52.5)	60(8.7)	47(6.9)	χ^2 32.07***
교사	9(9.7)	42(45.2)	33(35.5)	9(9.7)	0(0.0)	p .000

*** $p < .001$

바. 와 사.의 통계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술관계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것들을 익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배움은 미술관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아. 연계교육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6]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4.1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0명, ‘그렇다’ 165명, ‘매우 그렇다’ 73명, ‘전혀 그렇지 않다’ 54명, ‘그렇지 않다’ 44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4명, ‘보통이다’ 29명, ‘매우 그렇다’ 16명, ‘그렇지 않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실제 다양한 장르에 대한

감상부분에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학습에 앞선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장르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관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이라고 파악되는 부분이다. 효과적인 선행학습은 실제 학생들이 작품을 관람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46]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3(10.6)	165(24.1)	350(51.0)	44(6.4)	54(7.9)	χ^2	34.14***
교사	16(17.2)	44(47.3)	29(31.2)	4(4.3)	0(0.0)	p	.000

*** $p < .001$

자. 미술비평활동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관람한 미술 작품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7]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6.17$,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2명, ‘그렇다’ 144명, ‘매우 그렇다’ 75명, ‘그렇지 않다’ 64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7명, ‘보통이다’ 30명, ‘매우 그렇다’ 13명, ‘그렇지 않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7] 미술비평활동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5(10.9)	144(21.0)	352(51.4)	64(9.3)	50(7.3)	χ^2 46.17***
교사	13(14.0)	47(50.5)	30(32.3)	3(3.2)	0(0.0)	p .000

*** $p < .001$

차. 연계교육에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다양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8]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0.12$,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2명, ‘그렇다’ 144명, ‘매우 그렇다’ 75명, ‘그렇지 않다’ 64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47명, ‘보통이다’ 30명, ‘매우 그렇다’ 13명, ‘그렇지 않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으로 학생들의 10.2%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교사들은 4.3%만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표현 특징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며 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48] 연계교육에 표현 특징 활동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0(10.2)	144(21.0)	370(53.9)	56(8.2)	46(6.7)	χ^2 30.12***
교사	4(4.3)	42(45.2)	42(45.2)	4(4.3)	1(1.1)	p .000

*** $p < .001$

카. 연계교육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다양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49]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0.24$,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60명, ‘그렇다’ 163명, ‘매우 그렇다’ 69명, ‘그렇지 않다’ 47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0명, ‘보통이다’ 33명, ‘매우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그룹과 교사그룹 모두 미술관의 기능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술관 연계교육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49] 미술관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9(10.1)	163(23.8)	360(52.5)	47(6.9)	47(6.9)	χ^2 40.24***
교사	7(7.5)	50(53.8)	33(35.5)	3(3.2)	0(0.0)	p .000

*** $p < .001$

다. 연계교육이 미술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였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이 학생들의 미술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였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0]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2.77$,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3명, ‘그렇다’ 152명, ‘매우 그렇다’ 75명, ‘그렇지 않다’ 71명, ‘전혀 그렇지 않다’ 45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6명, ‘보통이다’ 25명, ‘매우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0] 연계교육이 학생들의 미술표현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높였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5(10.9)	152(22.2)	343(50.0)	71(10.3)	45(6.6)	χ^2 62.77***
교사	7(7.5)	56(60.2)	25(26.9)	5(5.4)	0(0.0)	p .000

*** $p<.001$

과. 연계교육이 학생들을 미술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미술관 연계교육이 이후 학생들의 미술 작업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1]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3.80$,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9명, ‘그렇다’ 151명, ‘매우 그렇다’ 69명, ‘그렇지 않다’ 40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명 순으로 나타났

고, 교사는 ‘보통이다’ 41명, ‘그렇다’ 40명, ‘매우 그렇다’ 6명, ‘그렇지 않다’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1] 연계교육이 미술 작업에 주도적 참여를 도왔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9(10.1)	151(22.0)	359(52.3)	60(8.7)	47(6.9)	χ^2 23.80***
교사	6(6.5)	40(43.0)	41(44.1)	6(6.5)	0(0.0)	p .000

*** $p < .001$

타.와 파.를 통해 미술관 교육 후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미술의 흥미를 높이는 것은 미술관교육이 감상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영역으로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과 교사 모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도 15%정도는 되지만 평소 ‘미술관은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에서 점차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인지할 때, 이는 앞으로 미술관 교육이 감상영역뿐만 아니라 체험, 표현영역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으로의 적용 확대가 기대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2]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0.51$,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42명, ‘그렇다’ 166명, ‘매우 그렇다’ 76명, ‘그렇지 않다’ 58명, ‘전혀 그렇지 않다’ 42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그렇다’ 55명, ‘보통

이다' 22명, '매우 그렇다' 15명, '그렇지 않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2]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76(11.1)	166(24.3)	342(50.0)	58(8.5)	42(6.1)	χ^2 60.51***
교사	15(16.1)	55(59.1)	22(23.7)	1(1.1)	0(0.0)	p .000

*** $p < .001$

하2.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3]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0.40$,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32명, '그렇다' 112명, '그렇지 않다' 105명, '전혀 그렇지 않다' 75명, '매우 그렇다' 62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보통이다' 65명, '그렇다' 21명, '그렇지 않다' 6명, '매우 그렇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3]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62(9.0)	112(16.3)	332(48.4)	105(15.3)	75(10.9)	χ^2 30.40***
교사	1(1.1)	21(22.6)	65(69.9)	6(6.5)	0(0.0)	p .000

*** $p < .001$

명(%)

하.와 하2.의 통계 결과. 진로와 연계된 미술관 연계교육의 효과를 보는 항목들로 미술에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 미술관 연계교육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미술관 연계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좀 더 낮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

1)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 의도

미술관 연계교육의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인식은 현시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넘어 참여지속의도와 개선점을 바라보는 것은 앞으로 적용될 교육과정내의 미술관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데 의미부여 할 것이다.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미술관 연계 교육 참여지속 의도 문항별 기술통계

미술관 연계 교육 참여지속 의도 문항별 기술통계치를 [표54]에 제

시하였다. 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었으며(M=2.36, M=1.31),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적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67, M=1.80). 실제 학생과 교사가 미술관교육의 참여의지에 대한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참여지속 의도를 결정하는 큰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미술교육연계 활성화와 지속적인 연계교육을 위해서는 지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54]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별 기술통계

문항내용	학생		교사	
	<i>M</i>	<i>SD</i>	<i>M</i>	<i>SD</i>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7	.98	1.80	.62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3	1.02	1.52	.56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6	1.01	1.31	.49

나.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에 관련한 일반적 특성 분포

학생과 교사의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와 관련한 일반적 특성 분포를 [표55]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이버 미술 관람을 포함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은 0회 126명,

연 1회 163명, 한 학기 1회 311명, 월 1회 38명, 월 2회 이상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방문을 통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은 0회 113명, 연 1회 190명, 한 학기 1회 297명, 월 1회 36명, 월 2회 이상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이버 미술 관람을 포함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은 0회 2명, 연 1회 48명, 한 학기 1회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방문을 통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은 0회 2명, 연 1회 54명, 한 학기 1회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미술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분포 (N=779)

그룹	구분	특성	N	%
학생 (N=686)	사이버미술관 관람을 포함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	0회	126	18.4
		연 1회	163	23.8
		한 학기 1회	311	45.3
		월 1회	38	5.5
		월 2회 이상	48	7.0
	기관방문을 통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	0회	113	16.5
		연 1회	190	27.7
		한 학기 1회	297	43.4
		월 1회	36	5.3
		월 2회 이상	49	7.2
교사 (N=93)	사이버미술관 관람을 포함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	0회	2	2.2
		연 1회	48	51.6
		한 학기 1회	43	46.2
		월 1회	0	0
		월 2회 이상	0	0
	기관방문을 통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의 적절성	0회	2	2.2
		연 1회	54	58.1
		한 학기 1회	37	39.8
		월 1회	0	0
		월 2회 이상	0	0

다.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6]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89.53$,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50명, ‘그렇다’ 167명, ‘매우 그렇다’ 90명, ‘전혀 그렇지 않다’ 41명, ‘그렇지 않다’ 37명 순으로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290명, 교사는 ‘그렇다’ 54명, ‘보통이다’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미술관과 학교의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입장은 전혀 없는 반면, 학생들은 11.4%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미술관 연계교육에서 흥미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약 10%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들의 적극성이 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56]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90(13.1)	167(24.4)	350(51.1)	37(5.4)	41(6.0)	χ^2	89.53***
교사	29(31.2)	54(58.1)	10(10.8)	0(0.0)	0(0.0)	p	.000

*** $p<.001$

라.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7]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13.57$, $p<.001$). 학생은 ‘보통이다’ 307명, ‘그렇다’ 182명, ‘매우 그렇다’ 101명, ‘그렇지 않다’ 52명, ‘전혀 그렇지 않다’ 40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매우 그렇다’ 47명, ‘그렇다’ 42명, ‘보통이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파일렛 테스트에서 실제 95%넘는 교사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예산지원을 뽑았고, 예산 지원은 안전한 교통편을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하며 미술관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학생들도 예산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교사들의 것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 예산에 대해 많은 정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육예산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7]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101(14.8)	182(26.7)	307(45.0)	52(7.6)	40(5.9)	χ^2	113.57***
교사	47(51.1)	42(45.7)	3(3.3)	0(0.0)	0(0.0)	p	.000

*** $p < .001$

마.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입장료 할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의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8]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07.28$, $p<.001$). 학생은 ‘보통이다’ 256명, ‘그렇다’ 217명, ‘매우 그렇다’ 152명, ‘그렇지 않다’ 29명,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매우 그렇다’ 65명, ‘그렇다’ 27명, ‘보통이다’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실태부분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미술관 관람 및 참여 비용이 적절 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의 통계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의 통계에서도 같은 부분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참여지속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질문의 유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학생과 교사 두 그룹 모두 평소 가는 미술관의 관람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속적인 미술관 참여를 위해서는 관람료의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58]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학생	152(22.3)	217(31.8)	256(37.5)	29(4.2)	29(4.2)	χ^2 107.28***
교사	65(69.9)	27(29.0)	1(1.1)	0(0.0)	0(0.0)	p .000

*** $p<.001$

바.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1)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59]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9.58$, $p<.001$). 학생은 ‘학교장의 인식 변화’ 225명, ‘미술관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166명, ‘학부모의 인식 변화’ 66명, ‘기타’ 60명, ‘교사들의 인식 변화’ 47명,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46명,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33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미술관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30명, ‘학교장의 인식 변화’ 27명, ‘교사들의 인식 변화’ 16명,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11명,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3명, ‘학부모의 인식 변화’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9]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지원 인식 차이 비교 명(%)

	학교장 인식	교사 인식	학부모 인식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성 향상	문화시설 확충	기타	분석 결 과
학생	225(35.0)	47(7.3)	66(10.3)	166(25.8)	33(5.1)	46(7.2)	60(9.3)	$\chi^2_{29.58}^{**}$
교사	27(30.3)	16(18.0)	2(2.2)	30(33.7)	3(3.4)	11(12.4)	0(0.0)	$p .000$

*** $p < .001$

2)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60]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98$, $p=.004$). 학생은 ‘교사들의 인식 변화’ 156명, ‘미술관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99명,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86명, ‘학부모의 인식 변화’ 69명, ‘학교장의 인식 변화’ 58명,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54명, ‘기타’ 5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미술관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32명, ‘교사들의 인식 변화’ 24명,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17명, ‘학교장의 인식 변화’ 6명,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6명, ‘학부모의 인식 변화’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60]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 인식 차이 비교
명(%)

	학교장 인식	교사 인식	학부모 인식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성 향상	문화시설 확충	기타	분석 결 과
학생	58(11.0)	156(29.6)	69(13.1)	99(18.8)	54(10.2)	86(16.3)	5(0.9)	$\chi^2 18.98^{**}$
교사	6(6.7)	24(27.0)	4(4.5)	32(36.0)	6(6.7)	17(19.1)	0(0.0)	$p .004$

*** $p < .001$

3)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 번째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61]에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0.32$, $p<.001$). 학생은 ‘학부모의 인식 변화’ 127명,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104명,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103명, ‘미술관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72명, ‘교사들의 인식 변화’ 62명, ‘학교장의 인식 변화’ 43명, ‘기타’ 14명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30명, '미술관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22명, '교사들의 인식 변화' 18명, '학교장의 인식 변화' 8명, '학부모의 인식 변화' 6명,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61]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 번째로 필요한 지원 인식 차이 비교

	명(%)							분석 결과
	학교장 인식	교사 인식	학부모 인식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성 향상	문화시설 확충	기타	
학생	43(8.2)	62(11.8)	127(24.2)	72(13.7)	103(19.6)	104(19.8)	14(2.7)	$\chi^2 40.32^{**}$
교사	8(9.1)	18(20.5)	6(6.8)	22(25.0)	4(4.5)	30(34.1)	0(0.0)	$p .000$

*** $p < .001$

바.항목의 세 가지 인식차이를 비교해보면, 학생과 교사 모두 미술관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필요한 지원으로 학교장의 인식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미령(2016)의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 운영자인 교장 또는 교감의 미술관 교육을 권장하는지 알아본 인식에서 95%의 교장 또는 교감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여기서 실제 교장 또는 교감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교장 또는 교감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학교장의 인식과 실제 학교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생은 교사의 인식(29.6%)과 학부모의 인식(2.2%)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육의 개선을 어른들의 인식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사는 프로그램 다양화(36.0%)와 문화시설 확충(34.1%)을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사는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미술관 연계교육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VI 결 론

오늘날의 미술교육은 미적체험으로 이해를 강조하며 문화정보와 여가 활동, 그리고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 현상의 이해와 향수 활동이 강조되는 현실성 있는 교육이 지향되고 있다(김성숙 외, 2003).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문화의 다원성과 삶의 질을 강조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에서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배움을 익히고 있다. 학교미술교육 안에서 이러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미술관이 있다. 질러(Zeller)에 따르면 미술관 교육의 사회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며 미술관 교육이 일상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채희정, 2010). 학교 교육과정안의 미술관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겨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적극적으로 미술관과의 교류를 권장하고 점차 미술관 교육의 교육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학교와 미술관 모두 인식하게 되었다. 이 후 2009개정 교육과정을 걸쳐 2018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관 교육에 대한 주목할만한 변화를 나타냈다.

첫째, 2009개정 미술과 목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2015개정 미술과 목표 내 ‘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부분은 2015개정에서 새롭게 수정된 미술과 목표로써 미술관과 학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둘째, 진로와 관련하여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미술관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5 개정에 새로 생긴 체험의 하위영역인 ‘연결’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기’로 미술관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즉,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미술관 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체계를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근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관 교육의 학습 목표와 내용이 2009개정, 2015개정 두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명하는 미술관 교육의 교육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관 교육 교육내용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미술관 교육 교육내용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점차 중요성의 측면이 부각되는 미술관과 학교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에 임하였다.

첫째, 2009개정과 2015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내의 미술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은 2009 개정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내의 미술관교육내용의 성취기준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연구,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관 교육내용 분류 및 분석의 과정으로 연구도구를 설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현직 미술교사와 미술관 교육담당자의 인터뷰, 현직 미술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법 등을 비롯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중요성으로는 평가의 부분에 대한 기준이 미비했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평가 도구는 2009개정과 2015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발하였다. 두 개정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관 교육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과의 연

계성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실태와 만족도 그리고 교육과정 목표달성 평가의 문제를 밝혀 학교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 한번도 연구되지 않았던 학생의 인식연구를 포함한 현직 미술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실태, 만족도, 교육과정 목표달성평가, 참여지속의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앞으로의 미술관과 학교의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 실태 부분에서 학생은 미술교육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매우 그렇다' 17.8%, '그렇다' 28.8%로 나타났고 교사는 '매우 그렇다' 8.6%, '그렇다' 49.5%로 나타났다. 학교 미술수업의 내용의 충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생은 '매우 그렇다' 18.7%, '그렇다' 28.6%로 나온 반면에, 교사는 '보통이다' 38.7%, '그렇지 않다' 34.4%로 학교에서 주어진 미술시간은 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미술시간 외의 미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그룹 모두 학교의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는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M=1.71), 학생은 미술교사가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79).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의 주체를 '학생'으로 정의하며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이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개선을 통해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셋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중학교 교육과정 목표 달성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교육과정내의 미술관 교육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영역들로 1) 진로와의 연계영역, 2) 자기 주도

적인 활동영역, 3) 미술품 표현 특징 영역, 4) 미술의 생활화 영역, 5) 미술 문화에 대한 태도 영역, 6) 미술 감상 비평 영역, 7) 미술문화의 다양성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문항화 한 문항들의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인식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에 적용되는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연계영역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에 따른 분석 결과, 학생이 실제 인식하는 미술관 관련 직업이 학생의 진로와의 연계 부분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낮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넷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M=2.36$, $M=1.31$), 학생은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횟수의 적절성으로 한 학기 1회(45.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교사들은 연 1회(5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두 그룹 다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중 교사는 현실적인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로 적절성을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생들과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통편, 식사, 입장료 등 많은 부분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관심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학교와 미술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술관 내부의 교육자인 교육 담당자와 학교의 교사와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역할 인식과 협력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미술관을 바라보는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도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에 따른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의 필요성과 흥미성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소마미술관²⁹⁾은 교사와 학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에 따라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 이다.

소마미술관은 교육담당자의 수가 9명으로 미술관의 규모의 비해 교육자의 수가 적지만 소마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결하여 국내 미술관에서 최초로 ‘아피뮤피’³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미래설계과정과 직업에 대한 설계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미술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기획된 학생 참여형 현장 체험 수업으로, 자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탐색’ 및 ‘예술체험’을 위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다.³¹⁾ 관람비용은 무료이며 감상, 체험, 강의, 제작, 토론 등 다양하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회를 가지고, 지역문화 발전과 미술관의 사회 교육적 역할을 위하여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지민, 2016) 이와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다양하게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미술관들에서 타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육자간의 소통이 요구된다. 또한 미술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학습의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실제 미술관교육에 앞선 효과적인 선행학습은 참여자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미술관이

29) 소마미술관, soma.kspo.or.kr

30) ‘아피뮤피’- 소마미술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미술관 현장관련 직업과 관련분야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피뮤피(Art people, Museum people)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출처] 소마미술관 청소년 국가인증프로그램, 아피뮤피(Art people, Museum people)의 현장으로, 국민체육진흥공간

31) 소마 미술관 <https://www.somamuseum.org/>

지속적인 평생교육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미술관 학교연계교육 프로그램과 타 미술관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평가부분에서 교육과정 목표가 포함된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와 미술관 측 모든 교육관계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상황에 맞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 서울시내 교사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각 지역별 사례를 통한 다양한 인식을 제시할 순 있었으나, 미술관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파악한 후 점차적인 지역인식연구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국내의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아직까지 미술관과 학교연계교육의 연계가 소극적인 상태임을 감안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도구에서 사용한 리커트 척도는 5개의 답항 (strongly approve - approve - undecided - disapprove - strongly disapprove)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국내 설문지 리커트 척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중간응답을 ‘보통이다’라고 기술했다. 이런 경우 응답이 중간점에 집중될 수 있고, 서열척도의 한계로써 총점의 뜻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분명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응답의 중앙 집중 오류 즉, 중심화 경향으로 나타

날 수 있다(박현애, 2012, 재인용)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진실 된 목소리를 듣고자 ‘보통이다’ 항목이 포함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간의 인식차이를 논의하는 부분에서 두 그룹 다 ‘보통이다’ 항목이 가장 높게 응답되고, ‘보통이다’ 항목을 제외하고도 그룹간의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시 ‘보통이다’ 항목은 제외하고 논의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2016년도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³²⁾에서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를 포함한 총 교육자의 수가 35명이 넘는 곳의 서울시내 미술관을 연구의 범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미술관의 교육담당자의 인터뷰 결과 단체 학급을 담당해야하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교육자의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 기준으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사립미술관으로는 리움.삼성미술관, 대림미술관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교육과정인 2009개정과 2018년도에 적용될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미술관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필요성과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미술관 학교연계교육의 평가가 다소 미비한 점과 현 실태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의 연구가 부족한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미술관의 끊임없는 협력과 참여자의 인식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연구와 관련하여 가능한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3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6, p.489, <http://www.mcst.go.kr>

다루어지지 않은 미술관 측의 인식에 대한 연구,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에 대한 연구 등이 제안된다.

참고 문헌

- 강인애(2010). 박물관교육의 다양성, 문음사
- 김규연(2013).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제7차~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호(2011). 미술관 교육 : 역사, 현황, 대안 = Education of art
museum : history, present and an alternative.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달진(2014). ‘박물관 교육과 박물관형 아카이브’에 대한 질의.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대회, Vol.-No.28.
- 김서현(2007). 미술관과 중·고등학교 미술교육 연계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 Research of the ways to develop bond between
Art Gallery and Fine art education of Middle and
High-school.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외(2003). 감성 계발을 위한 만화 표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초
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4 No.1
- 김정은(2008). 미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중등학교 미술관
교육을 중심으로 =(A)study on the status in fine arts education
and ways of improvement : on a focus of an education program
in the arts museum of middle schools,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숙(2001). 미술, 전시, 미술관 = Arts, exhibition, museums, 예경.
- _____(2001). 미술관과 소통 = Museums and communication, 예경.
- _____(2010). 미술교육, 사회와 만나다 = 예경.

- 김미정(2009).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을 통한 색채교육에 관한 연구 : 색채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or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Art Textbooks of Middle School,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1993). “미술관교육이란?”, 造形教育
- 고은실(2008). 미술비평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2권 2호
- 교육과학기술부(제 2009-41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_____(제 2015-74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제 1997-15).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제 2015-74). 「2015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 미술관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침서(2009). 한국사립미술관협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1996). 서울 : 문화관광부
- 박은덕(2003). 미술과 목표 및 내용 체계의 방향, 미술교육총론, 171-14.
- 박지민(2016).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학교·미술관 연계 수업지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휘락(2006).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_____(1998). 한국미술교육사, 예경.
- 박현의(2011).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애(2012). 과학교육 연구에서 리커트 척도 활용의 함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자정(2007).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순근(2004).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육과학사
- 신화윤(2011).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중학교 미술 감상지도
연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채(2009). 초등학교 연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분석 및
모형개발 :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보리(2016). 방과 후 박물관 연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연구 :
고려대학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화윤(2012).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중학교 미술 감상지도 연
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1997). 美術館을 통한 美術 教育에 대한 研究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금희 외(2001). 미술관과 학교 연계 미술관 교육의 원리와 사례에
관한 연구 :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미술교육학회.
- 안금희. 미술관 교육과 미술관 문화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미술교육학회, [1999]
- 안금희, 변순영(2002). 미술관 관람객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미술교육연구총론 Vol.13 No.1.
- 양경운(2015). 청소년 미술 감상능력 신장을 위한 미술관·학교 연계 교
육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신(2006). 박물관·미술관과 학교 교육과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연구
: 국내외 학교교육 연계프로그램 현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진(2005).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선 외(1994). 미술 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동겸(2014). 미술관 교육과 학교미술수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중등 미술 교육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2005). 체험마케팅 도입을 통한 미술관 이용객의 만족도 연구 :
서울 소재 미술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보아(2000).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 이성도외(201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분석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을 중심으로. 한국미술교육학회.
- 이세현(2014). 미술관교육과 중등학교 미술감상교육의 연계 활성화 연
구 : 2009개정 교육과정과 지역미술관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이연수(1997). 현대 미술관의 미술교육 사례 연구 : 모란미술관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현(2014). 미술관교육과 중등학교 미술감상교육의 연계 활성화
연구 : 2009개정 교육과정과 지역미술관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13). 국내 박물관·미술관 에듀케이터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애(200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기업박물관 활성화
방안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윤영(2012).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윤영(201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문화교차학적
다양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문정(2008).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성수(2006).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6). 문화체육관광부
- 정현경(2002). 뮤지엄 형성의 사회적 배경과 역할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내영(2008). 미술관 교육과 학교 미술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용미(2007). 학교와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 박물관•미술관 연계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학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리(2017). 분배의 장으로서 미술관의 기능 변화 연구 : 대립미술관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민양(2011). 뮤지엄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미령(2016). 박물관·미술관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운영자의 인식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우정(2008). 박물관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송파지역 박물관과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희(2003). 미술관과 미술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 개발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애(2016). 중학교 미술교과서 표현영역의 입체와 평면표현 비교
분석 연구 :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슬(2010). 미술관, 박물관 교사 연수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희정(2010). 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관 교육의 협력 교육과정 탐색 : 중

등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G.E.Hein(2012). 구성주의 박물관 교육론 Learning in the museum,

민속원

Gaelle Bernard(1995). "미술관과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소식]. 제15호 국립현대미술관.

ICOM(1992). 미술관 교육, [현대미술연구], 제3집, 국립현대미술관.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Definitions' Code of Professional

Ethics, Paris(1989). : ICOM, section 1.2 'Museum'

Hooper-Greenhill,E.(1995), Museums and Gallery Education,

Leicester: London: Rice, D., Museum education embracing

uncertainty, The art Bullertin. v.77, Leicester University

Press.

_____ (1996), 'Museum and their visitors'. londer &

newyork, Routledge.

Rice, D(1995). "Museum education embracing uncertainly". The art

Bulletin. v77.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2017.02.21. 인출)

서울시립미술관 <https://www.sema.seoul.go.kr> (2017.02.21. 인출)

리움,삼성미술관<https://leeum.samsungfoundation.org> (2017.02.21.인출)

대림미술관 <https://www.daelimmuseum.org> (2017.06.12. 인출)

소마미술관 <https://soma.kspo.or.kr> (2017.02.21. 인출)

AAA(미국뮤지엄협회) <http://www.aam-us.org> (2017.02.21. 인출)

교육부 <http://freeseam.moe.go.kr> (2017.06.12. 인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화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학술정보원 <http://www.riss.co.kr>

헤럴드경제, 2015.03.17 <http://news.heraldcorp.co>

[m/view.php?ud=20150317000512&md=20150317105618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7000512&md=20150317105618_BL),

(2017.06.12. 인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understanding by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actual state of current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and their satisfaction by analyzing curriculum on art museum as proposed in the 2009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and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This research seeks to grasp the understanding by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Seoul city area of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by recognizing the need for tailoring school-linked museum education to current curriculum and future curriculum expected to be adopted in 2018.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posing improvements and invigoration of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For this research, research tools have been developed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museum educational contents embedded in the curriculum based on a review of prior literature and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The main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is process are literature review, survey of incumbent art teachers, etc. By this, research methodologies have been completed by selecting a total of 7 evaluation standards and developing 4 sub-areas including current state, satisfaction, evaluation on achievement of curriculum objectives and intention of continued participation.

To do this, surveys of 686 students and 93 teachers from 64 middle schools in Seoul have been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his research has drawn following research outcomes. First, both students and teachers have an average level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and students in particular have a below-average level of general interest in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In particular, meaning differences have been shown only in areas related to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on and support provided by art museum and school in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Second, the tendency for general understanding of school-linked art museum has been confirmed.

In particular, various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have been exhibited in questions on the need for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While teachers recognize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as highly necessary, students do not recognize as much. Both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ze viewing exhibits as the most beneficial program of art museum. For the second most beneficial program, teachers respond as “utilization of activity sheet,” while students respond as “creation of individual pieces.” Third,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of the effect on achievement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has been analyzed. In particula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students and teachers have been shown in questions related to career path. In career path area that is emphasized in the curriculum, there is low correlation between art museum-related career as actually recognized by students and their own career path. However, teachers recognize that students have a high level of interest.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awarenes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intention for continued participation in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consensu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has been found in the need for subsidizing admission fee for continued participation. Both groups have display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and meaningfully shown intention for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upon above results, efforts to increase general interest by teachers and students in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oles played by educators within art museums, teachers and students as well cooperation among them are needed. In addition, instruction for change in the attitude towards art museum as the center for life-time education is required. Second,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within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including prerequisite learn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is needed. Also, the attitude for continuous research is required for helping art museums to function as the center for continuous life-time education. Third, systematic principles and standards including curriculum objectives are necessary in the evaluation of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and need to be shared among all educational officials in schools and art museums. Fourth, policy support and consideration for culture and arts are required to develop school-linked art museum education.

-붙임1- 설문지

-교사용-

<설문지>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연구**를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 자료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각 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연구자 후보영

I.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1. 현재 학교에서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학교 내 **교실에서 실시하는 미술수업만으로도 미술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술교육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2016학년도에 귀하의 학교에서 **단체로 미술관 관람을 포함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어떠합니까?

-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5. 2016학년도에 귀하의 학교에서 **학생 자율체험 형식으로 미술관 관람을 포함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어떠합니까?

-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6. 학교에서 **단체 견학 경험**이 있는 미술관은 어디입니까?

- ① 리움(Leeum) ② 국립현대미술관 ③ 서울시립미술관
④ 대림미술관 ⑤ 기타

7. 그동안 귀하가 참여하셨던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전시물 관람 _____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_____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_____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_____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_____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_____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_____
- ⑧ 기타 : _____

8. 귀하가 참여하셨던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흥미와 관심**을 가장 많이 이끌었습니까?

- ① 전시물 관람 _____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_____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_____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_____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_____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_____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_____
- ⑧ 기타 : _____

9.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미술관 측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안내와 정보 자료**를 귀하에게 충분히 **제공**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생들의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술관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의 학교는 평소 학교 내 게시판 등에 **미술관 전시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의 학교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귀하의 학교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I. 미술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1. 귀하께서는 미술관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학교에서 미술관 연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특정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해
- ② 학교가 보유하지 못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 ③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 ④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학습하기 위해
- ⑤ 학생들에게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 ⑥ 기타 ()

3. 미술관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술교과의 지식습득 ②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③ 미술의 흐름 이해
④ 감상 능력 향상 ⑤ 미술관에 대한 이해 ⑥ 미술관 현장학습을 위한 사전
준비
⑦ 기타()

4. 귀하의 학교 미술교사는 미술관 연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 학교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6. 미술관 연계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7. 미술관 프로그램은 **학교미술수업과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학생들의 미술관 내 프로그램 참여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연계교육으로 방문한 미술관의 전시물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미술관 내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는 교육적으로 적당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미술관 내 **관람 및 활동 참여에 소요된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기타

12. 박물관 내 교육 진행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 중 어떤 활동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하였습니까?

실제 경험하신 것들 중 선택하셔서 가장 유익했던 세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 ① 전시물 관람 _____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_____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_____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_____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_____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_____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_____
- ⑧ 기타 : _____

15.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술 연계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세 가지 골라 체크해 주세요.

- ① 전시물 관람 _____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_____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_____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_____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_____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_____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_____
- ⑧ 기타 : _____

16. 향후 진행될 미술관 연계 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직접 견학 ② 직접 견학을 통한 미술관 내 실습
③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한 학교 내 통신교육
④ 학교 내 통신교육과, 교사가 지도하는 실습의 병행

Ⅲ. 미술관 연계교육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 평가

1.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은 스스로 미술관/전시회 등을 관람하게 되었습니까? (미술의 생활화, 지역 문화공간 활용)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학생들은 미술 작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까? (미술문화(유산) 존중)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학생들은 미술 작품 감상을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미술의 생활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미술관 연계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미술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 미술 이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6. 학생들은 관람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전시된 자료를 읽거나 찾아보게 되었습니까? (문화적 맥락 이해)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이 탄생한 **사회의 특성이 작품에 반영됨**을 알게 되었습니까?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였습니까?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학생들은 관람한 미술 작품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까? (미술비평활동)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미술관 연계교육은 다양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했습니까? (표현 특징 찾아 비교, 설명하기)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미술관 연계교육은 학생들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의 **미술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이전 보다 **높아**졌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은 미술 작업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주도적 참여)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학생들은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진로와 연계)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학생들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진로와 연계)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V.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

1.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학생들의 사이버미술관 관람을 포함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했으면 좋겠다. ② 일 년에 1회 ③ 학기에 1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이상

3. 학생들의 기관방문을 통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했으면 좋겠다. ② 일 년에 1회 ③ 학기에 1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이상

4.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으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① 학교장의 인식 변화 | ② 교사들의 인식 변화 |
| ③ 학부모의 인식 변화 | ④ 미술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 ⑤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⑥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확충
⑦ 기타 ()

V.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교육경력은?

- ① 0-5년 ② 6-10년 ③ 11-20년 ④ 20년 이상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사 ② 석사과정 ③ 석사졸업 ④ 박사과정 ⑤ 박사졸업

5.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설립은?

-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6.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 주변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 ① 상 ② 중 ③ 하

7.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 구비 수준은?

- ① 상 ② 중 ③ 하

<설문지>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연구**를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 자료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각 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연구자 주보영

I. 미술관 연계 교육의 실태

1. 현재 학교에서 **미술교육 시간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학교 내 **교실에서 실시하는 미술수업만으로도 미술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학교에서 실시되는 미술교육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2016학년도에 귀하의 학교에서 **단체로 미술관 관람을 포함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어떠합니까?

-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5. 2016학년도에 귀하의 학교에서 **학생 자율체험 형식으로 미술관 관람을 포함하는 미술관 연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어떠합니까?

-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6. 학교에서 **단체 견학 경험이 있는 미술관**은 어디입니까?

- ① 리움(Leeum) ② 국립현대미술관 ③ 서울시립미술관
④ 대림미술관 ⑤ 기타

7. 그동안 귀하가 참여하셨던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전시물 관람 _____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_____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_____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_____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_____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_____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_____
- ⑧ 기타 : _____

8. 귀하가 참여하셨던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흥미와 관심**을 가장 많이 이끌었습니까?

- ① 전시물 관람 _____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_____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_____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_____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_____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_____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_____
- ⑧ 기타 : _____

9.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미술관 측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안내와 정보 자료**를 귀하에게 충분히 **제공**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생들의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술관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의 학교는 평소 학교 내 게시판 등에 **미술관 전시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의 학교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귀하의 학교는 **미술관 연계 교육**이 필요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미술관 연계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미술관 프로그램은 학교미술수업과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학생들의 미술관 내 프로그램 참여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연계교육으로 방문한 미술관의 전시물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미술관 내 전시 작품 내용과 개수는 학습하는데 적당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미술관 내 관람 및 활동 참여에 소요된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기타

12. 박물관 내 교육 진행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미술관 내 교육 담당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 중 어떤 **활동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하였습니까?

실제 경험하신 것들 중 선택하셔서 가장 유익했던 세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 | | |
|----------------------------------|-------|
| ① 전시물 관람 | _____ |
| ② 도슨트(또는 교사 등)의 작품 설명 청취 | _____ |
| ③ 준비된 미술관 활동지 활용하기 | _____ |
| ④ 개인별 작품 만들기 | _____ |
| ⑤ 공동체 작품 만들기 | _____ |
| ⑥ 학생들끼리의 토론활동 | _____ |
| ⑦ 작가나 예술가, 미술관 측 교육 진행자 등과의 토론활동 | _____ |
| ⑧ 기타 : | _____ |

15.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술 연계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세 가지 골라** 체크해 주세요.

지 않다

4.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감상 태도가 향상**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미술관 연계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미술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 미술 이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학생들은 관람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전시된 자료를 읽거나 찾아보게 되었습니까? (문화적 맥락 이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이 탄생한 **사회의 특성**이 작품에 반영됨을 알게 되었습니까?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미술관 연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였습니까? (미술문화의 다양성 이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학생들은 관람한 미술 작품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까? (미술비평활동)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미술관 연계교육은 다양한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했습니까? (표현 특징 찾아 비교, 설명하기)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미술관 연계교육은 학생들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의 **미술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이전 보다 높아**졌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미술관 연계교육 이후, 학생들은 미술 작업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주도적 참여)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학생들은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진로와 연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학생들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진로와 연계)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V. 미술관 연계교육 참여지속의도

1.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미술관 연계교육**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학생들의 사이버미술관 관람을 포함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했으면 좋겠다. ②일 년에 1회 ③ 학기에 1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이상

3. 학생들의 기관방문을 통한 **미술관 연계교육**의 시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했으면 좋겠다. ②일 년에 1회 ③ 학기에 1회 ④ 월 1회 ⑤ 월 2회 이상

4.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는 학생들의 미술관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7.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구비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붙임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연구

연구 책임자명 : 주보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생)

이 연구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미술관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교사/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사범대학 연구원 주보영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700명의 서울시내의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약 20분간의 설문지 응답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모든 과정은 학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단기간 참여시 다음과 같이 기재

: 약 (20) 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미술관 학교연계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주보영 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주보영_____ 전화번호: _____***-****-****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